



## 메시아 2030 ~ 메시아 예언 타임라인 – 제 2 부

본 원고와 슬라이드는 영어로 된 원본 영상으로 볼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튜브

[youtube.com/@messiah2030](https://youtube.com/@messiah2030)



디지털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Messiah2030.com](https://Messiah2030.com)

블루레이 디스크와 플래시 디스크

[Messiah2030Disk.com](https://Messiah2030Disk.com)

본 메시아 2030 ~ 메시아 예언 타임라인 – 제 2 부 문서는 이 영상 콘텐츠를 번역하거나 도움이 될 경우 영상 프레젠테이션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콘텐츠를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상 프레젠테이션을 시청하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e Messiah 2030 Project

[contact@messiah2030.com](mailto:contact@messiah2030.com)

이 프레젠테이션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예언과 패턴을 캘린더 기반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본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만, 확정적인 해석은 아니며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은 최근에 "메시아 2030 ~ 메시아 예언 타임라인 1 부"를 시청했고, 시기 해석에 대한 핵심 원리와 그에 따른 결론을 이미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메시아 2030 - 메시아 예언 타임라인" 제 1 부에서는 40 개의 예언과 패턴을 공개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추어져 창조주의 마스터플랜 작품을 완성하듯이, 예언과 패턴들이 모여 아름답고 완전한 일곱 "날" 즉 7,000 년의 메시아 계획이 완성됩니다. 이 7,000 년 즉 일곱"날들"은 그 후 여덟째 "날" 즉 성경력 7,000 년에 진입하며 이것은 영원을 나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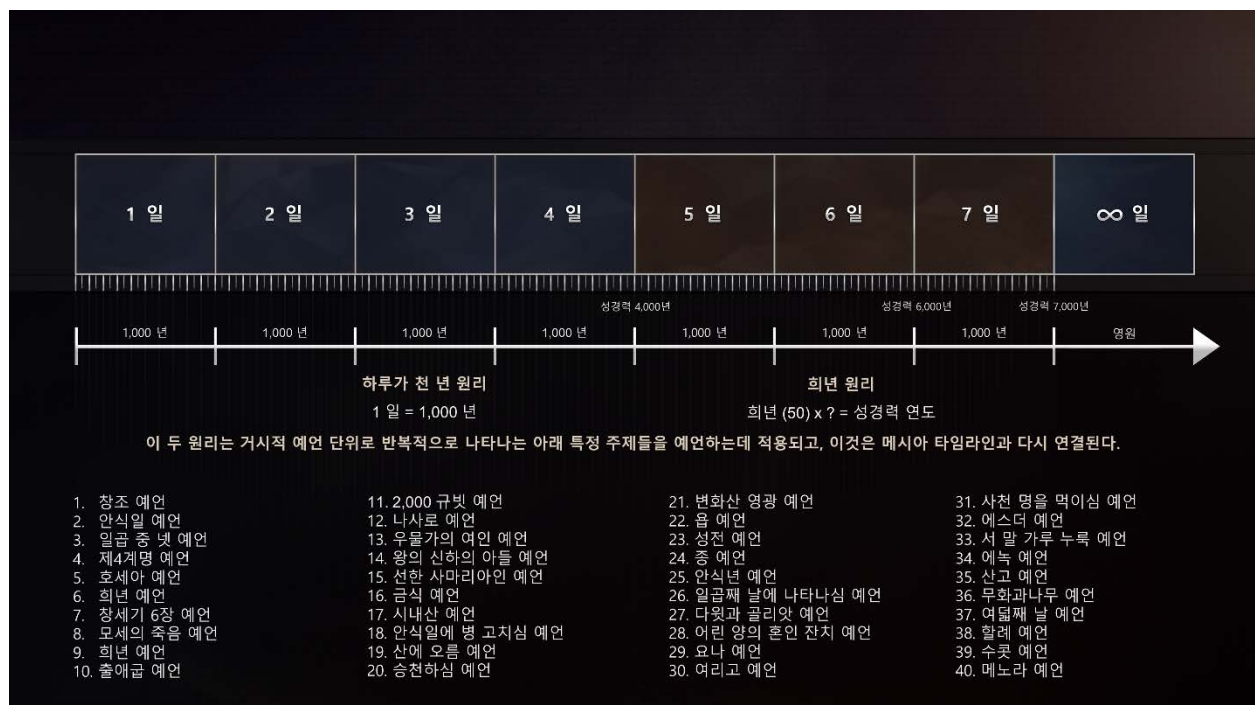
성경 말씀에서 하루가 특정한 맥락과 패턴에서 예언적으로 1,000 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가 천 년" 원리라고 했습니다.

또 특정한 맥락과 패턴에서 어떤 수치들에 희년의 거시적 단위 50 을 곱하면 중요한 메시아의 시기를 나타냅니다. 이것을 "희년 원리"라고 했습니다.

이 두 원리는 거시적인 예언 단위로서, 반복되는 특정한 주제들의 예언에 적용되어 다시 메시아 타임라인으로 연결됩니다.

이 원리들을 구체적으로 적당한 예언과 패턴들에 적용해 보면서, 우리 메시아께서 성경력 4,000 년에 시작된 다섯째 "날"의 첫 해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 보았습니다.

Slid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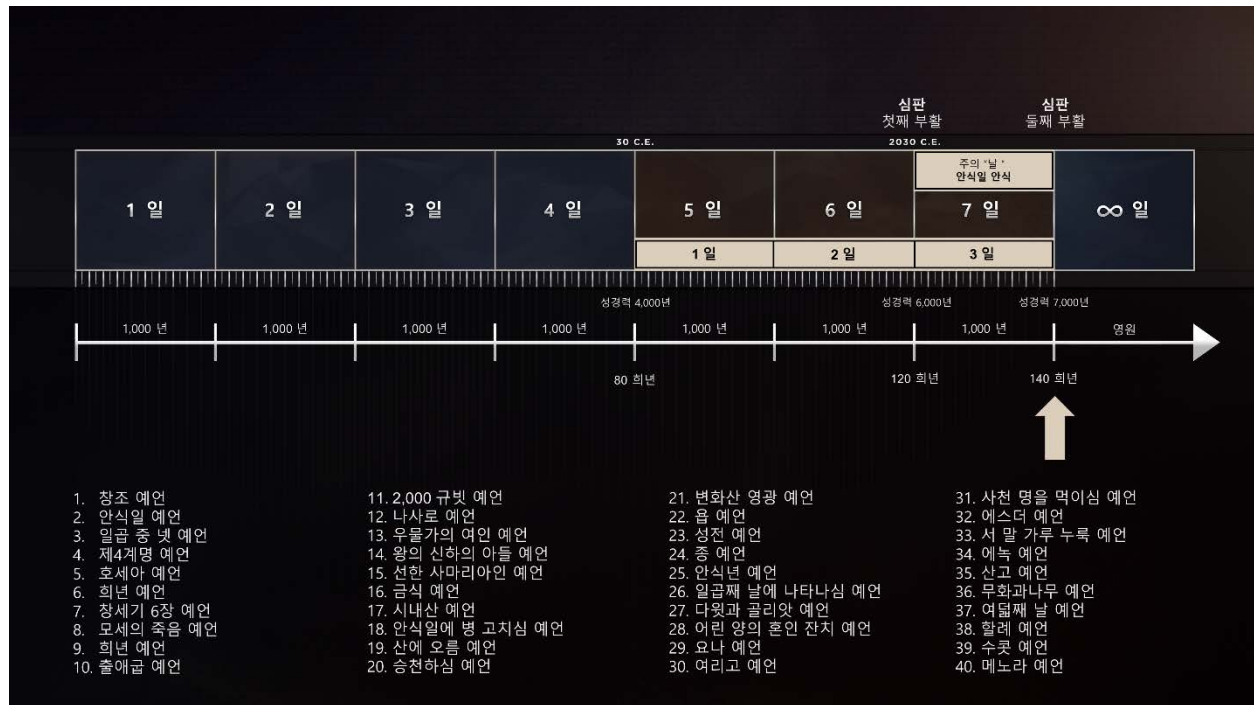
같은 예언과 패턴으로 "주의 날"에 메시아가 재림하시는 시기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날"도 어떻게 천 년으로서 "하루"가 되는지 밝혔습니다. 성경력 6,000 년에 시작하여 예언의 일곱째 날인 안식일로 상징되는 1,000 년입니다. 이 1,000 년 즉 "하루"는 심판과 첫째 부활로 시작해 심판과 두 번째 부활로 끝납니다.

성경력 6,000 년은 "7 번째 날"의 시작점일 뿐만 아니라, 우리 메시아께서 성경력 4,000 년 또는 그레고리안력 서기 30 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에서부터 정확히 "3 일째"되는 날이자 "이틀" 후이기도 합니다. "이틀" 또는 정확히 2,000 년 후는 성경력 6,000 년 또는 그레고리안력 2030 년의 주의 날입니다.

같은 패턴이 희년 단위에서도 나옵니다. 메시아의 초림은 80 희년(80 x 50 = 4,000)이어야 했고 재림은 120 희년(120 x 50 = 6,000)이 될 것이며, 여덟 번째 날은 140 희년(140 x 50 = 7,000)에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Slide 2



메시아 2030 2 부~ 메시아 예언 타임라인에서는 이제 메시아께서 성경력 4,000 년에 초림하시고 성경력 6,000 년에 재림하신다는 예언과 패턴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후 그 날과 그 때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의미에 대해 간단히 프리젠테이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7 뒤에 숨겨진 예언의 뜻을 밝히는 '라멕 예언'으로 이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욥의 일생 예언

욥기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에는 메시아 예언 타임라인의 주요 시간 지점을 총괄해 요약하는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 욥기 42:1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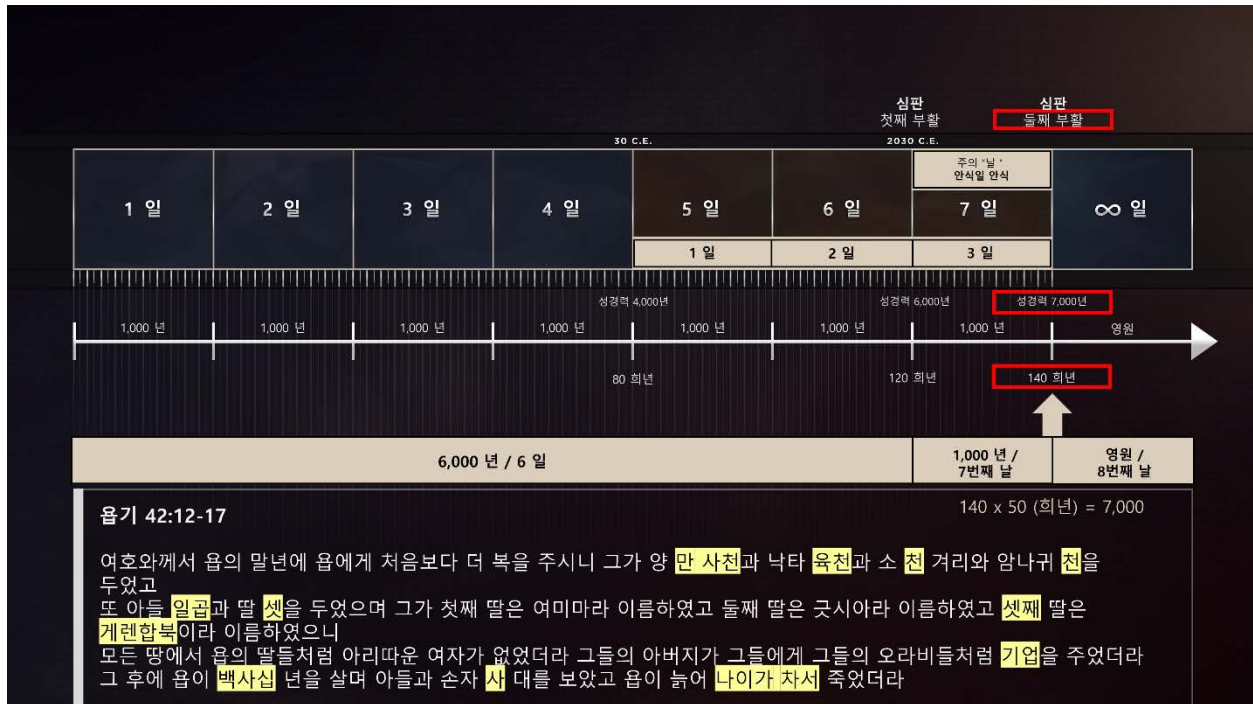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만 사천과 낙타 육천과 소 천  
겨리와 암나귀 천을 두었고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겿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백사십 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 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 한 문단은 메시아의 때에 대한 표현으로 가득합니다. 여덟 날들 즉 8,000 년이 모두 차례대로 숫자로 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000 년 즉 여섯 날을 상징하는 6,000 마리의 낙타, 일곱째 날을 상징하는 1,000 마리의 소, 그리고 여덟째 날을 상징하는 1,000 마리의 나귀가 있습니다. 또 세 딸과 일곱 아들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을 나타냅니다. 딸들은 특별히 "아리따우"며 "기업"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린양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장차 부활 때에 유산으로 영광스러운 몸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합니다. 셋째 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문자 그대로 아름답다는 의미이며, 우리가 신랑이신 메시아를 만나는 세 번째 날과 다시 연결될 것입니다.

욥은 "충만한 삶"을 누리 140 세까지 살다 죽었습니다. 140 에 희년 단위 50 년을 곱하면, 희년 예언 원리가 적용되어 인류의 충만한 날들 즉 여덟 날들에 도달하게 됩니다.  $140 \times 50 =$  성경력 7,000 년입니다. 욥이 아들과 손자를 "사 대"까지 보았다는 말은 우리가 넷째 날에 하나님의 아들 즉 우리 메시아를 보게 된다는 암시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수께끼 같은 14,000 이 있습니다. 단순히 7,000 에 2 를 곱한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욥기 42:10 에서 두 배의 축복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경력 7,000 년까지 두 번의 부활이 축복으로 주어진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Slide 3



성경력 7,000 년에 두 번의 부활이 성취된다는 것은 오순절의 50, 희년의 50 에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7,000 년 계획에서 일곱째 날 안식일이 메시아의 1,000 년 통치를 예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부활은 7 일째 "날" 다음, 안식 후에 일어납니다. 즉 8 일째에 일어납니다.

희년 계산도 비슷한 패턴을 사용합니다.

희년 계산은 먼저 7 년으로 이루어진 한 이레에 또 한 이레를 곱하여 총 49 년을 얻습니다. 그 다음 해가 50 번째 해인 희년입니다. 7 년 이레 주기에서 7 번째 해는 땅을 위한 안식년이기 때문에, 희년 바로 전 해도 땅을 위한 안식년이 됩니다. 따라서 땅을 위한 7 번째 안식년 다음 해는 단순히 "50"일 뿐만 아니라 7 번째 안식년 다음에 오는 예언적인 "8 일"이 됩니다.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는 마지막 희년은 140 번째 희년입니다. 마찬가지로 "8 일"은 인류의 계획에서 마지막 날로, 영원을 상징합니다. 희년은 땅의 안식년이기도 하므로, 두 번의 "안식"이 연속으로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1,000 년 통치는 우리가 고대하는 7 번째 날 안식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8 일의 영원으로 이어지고, 이로써 역시 연속된 두 "날"의 안식이 발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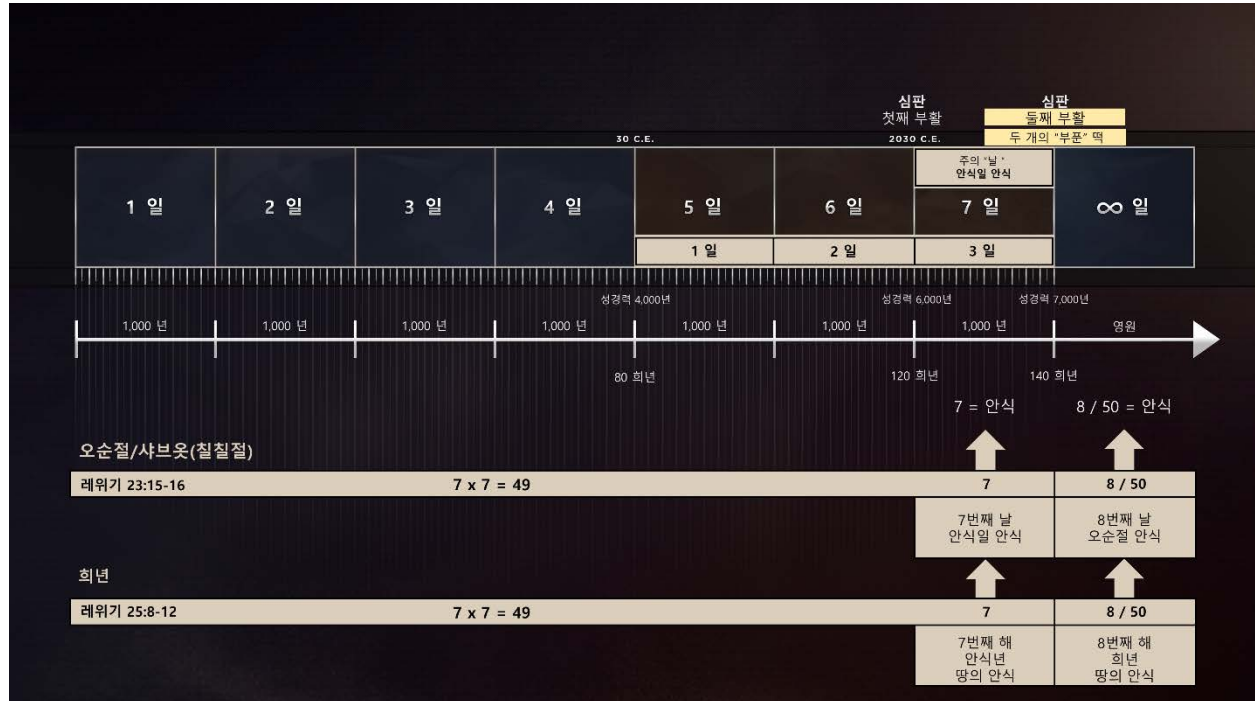
오순절 계산도 비슷한 패턴을 따릅니다.

오순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7 일로 이루어진 한 이레에 또 한 이레를 곱하면 총 49 일이 되고, 그 다음 날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안식일이 됩니다. 그 날이 50 일째 날인 오순절입니다. 매주 7 번째 날이 하나님의 백성의 안식일이므로, 오순절 전날도 안식일이 됩니다. 이렇게, 7 번째 안식일의 다음 날은 "50"일 뿐만 아니라 7 번째 안식일 다음에 오는 "8 일"의 예표가 됩니다. 오순절도 안식하는 날이므로,

이렇게 하여 두 번의 "안식"이 연속으로 발생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1,000 년 통치가 우리가 기다리는 7 번째 날 안식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영원으로 이어져 연속된 두 번의 안식"일"이 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패턴이 두 부활 중 두 번째 부활이 8 일째 날의 시작에 일어날 것을 시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오순절에 두 개의 "부활" 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샤브옷<sup>1</sup> Shavuot은 마지막 부활이며 이렇게 해서 두 번의 부활이 완성될 것입니다.

Slide 4



### 솔로몬의 보좌 예언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감동되어 솔로몬에게 120 달란트의 금을 바치고 그 예물을 이스라엘의 왕위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통치에 돌립니다.

### 열왕기상 10:9-10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므로 당신을 세위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sup>1</sup> 칠칠절

*이에 그가 금 일백이십 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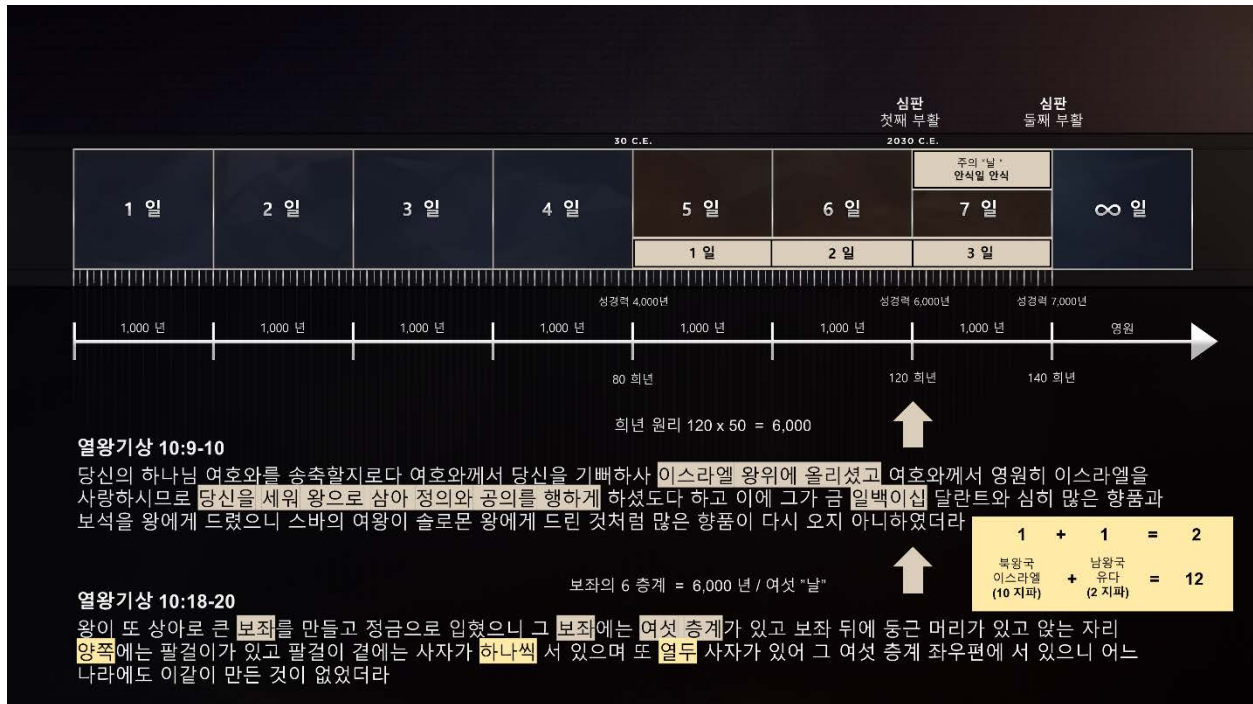
“희년 원리”를 적용하여 120 x 50 을 계산하면 앞서 비슷한 대목들에서 수차례 계산했던대로 성경력 6,000 년에 도달하게 됩니다. 성경력 6,000 년은 메시아께서 지상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며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실 주의 날 1,000 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 **열왕기상 10:18-20**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여섯 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몇 구절 다음에 솔로몬이 만든 보좌가 나옵니다. 그 보좌에는 여섯 층계가 있는데, 이는 7 번째 날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기 전의 여섯 날, 즉 6 천 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 와 12 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는 결국 두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열 지파인 북왕국 이스라엘과 두 지파인 남왕국 유다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예레미야 3:8 에서 하나님께 이혼서를 받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으로 알려진 유다 왕국은 돌아오긴 했지만 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며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1 세기 당시의 지배적인 집단이었습니다. 에스겔 37 장의 예언에 따르면, 이 두 왕국은 다시 하나의 왕국으로 회복되어 부활 때에는 열 두 지파가 모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두" 왕국을 나타내는 "두"와,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를 나타내는 "열 둘"이 연결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미 많은 예언의 때에 대한 정보를 제시했지만, 메시아께서 보좌에 올라 통치를 시작하시는 사건 이외에도 관련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솔로몬에 관련된 사건들은 메시아 통치의 시작 시기를 나타낼 뿐 아니라 유사한 언어로 요한계시록의 나팔도 나타냅니다.

**마지막 나팔 예언**

요한계시록에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을 특별히 "세 화" 라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8:13**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난 후 첫째 화가 지나갔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9:12**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 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난 후 두 증인이 죽고 둘째 화가 지나갔다고 합니다.



## 요한계시록 11:14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러므로 7 번째 나팔은 동시에 3 번째 "화"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이제는 아주 잘 알고 있는 메시아 예언의 때를 나타내는 셋과 일곱 패턴을 얻었습니다. 3 번째 "화"와 7 번째 나팔은 3 일째이자 7 일째에 발생합니다. 7 번째 나팔은 동시에 3 번째 "화"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메시아 예언의 시기를 드러내는 친숙한 패턴인 3 과 7 을 얻게 됩니다. 3 번째 "화"이자 7 번째 나팔은 3 번째이자 7 일째에 발생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보좌" 예언, 1 부의 패턴과 예언들에서 배운 것처럼, 메시아는 3 일째이자 7 일째에 1,000 년 통치를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마지막 7 번째 나팔과 메시아의 통치의 시작을 연결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 요한계시록 11:15-18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이십사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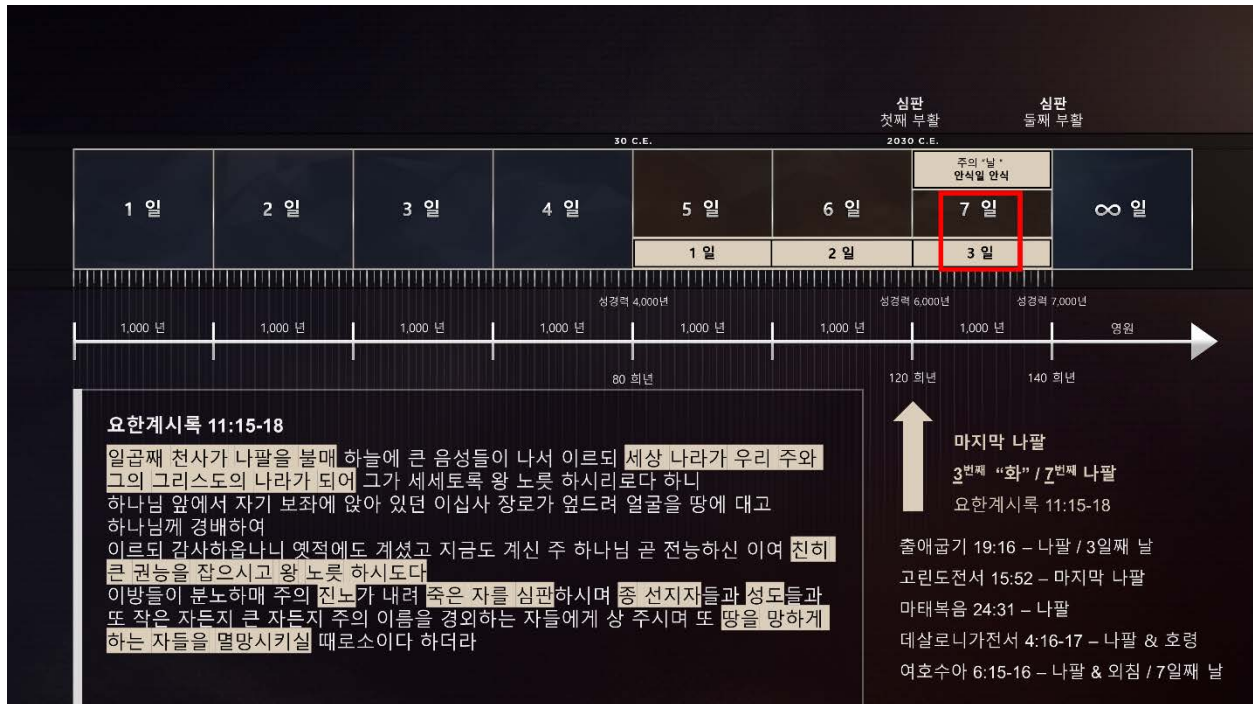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여기서 메시아가 통치를 시작하실 때는 일곱 번째 즉 마지막 나팔을 불 때이며, 우리가 부활할 때 상을 받고 진노의 대접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제 심판을 받고 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는 마지막 나팔을 불 때 부활하는 것을 뜻하며 이 부활은 3 일째 날과 7 일째 날과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보았듯이 큰 나팔 소리와 외침은 3 일째이자 7 일째, 휴거와 첫 번째 부활, 왕의 대관식, 하나님이 대적들을 이기시는 구절들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 세 우물 예언

이삭이 세 개의 우물을 파고 브엘세바로 올라감은 "3 일째와 7 일째"에 또다시 연결됩니다. 브엘세바는 역시 히브리어로 "일곱 개의 우물"을 의미합니다.

### 창세기 26:18-23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섹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므로 그 이름을 싯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처음 두 우물은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 후의 이틀 즉 2,000 년을 의미하며 분쟁, 다툼과 관련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오랜 동안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서 그 결과로 수없는 교파와 교리가 만들어졌습니까.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분쟁과 다툼이 끝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서에서 메시아께서 다윗 왕으로 다스리시는 때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셋째 날이 될 것입니다. 그는 유일한 참된 목자로서 행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따라 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더 이상 논쟁이나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 **에스겔 37:24**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우리 메시아께서 왕으로 즉위하여 1,000 년 동안 다스리실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는데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삭은 세 번째 우물을 장소가 넓음 또는 거할 곳 *room* 이 많다는 뜻의 르호봇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한 거처가 많으며 3 일째이자 7 일째 날의 부활 때에 받게 될 것입니다.

### **요한복음 14:2-3**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 room 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사야에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산고와 부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밀실에 들어가서 잠깐 숨습니다.

### **이사야 26:16-21**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 **[산고]**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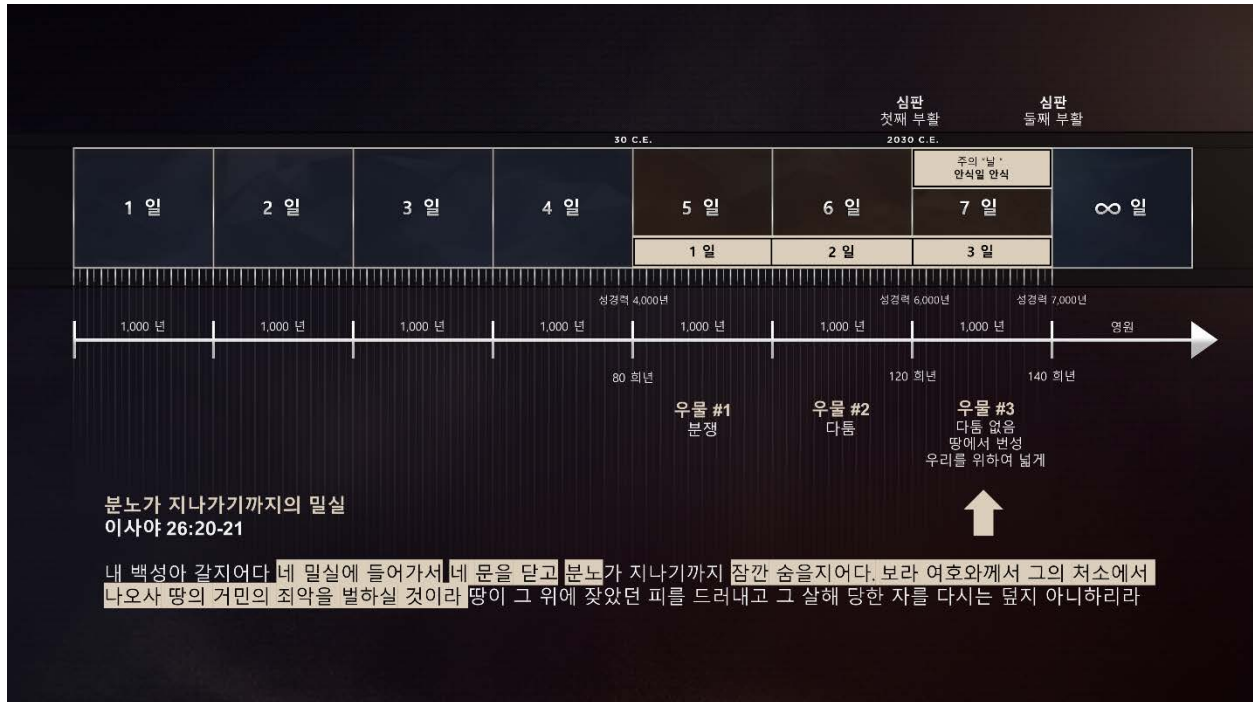
**[부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분노가 지나가기까지의 밀실]**

내 백성이 같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잤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 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으로, 그들은 세 개의 우물을 판 후 브엘세바에서 한 개의 우물을 더 팠습니다. 히브리어로 "브엘세바"는 "일곱 개의 우물"을 뜻하며, 이를 통해 3 일째와 7 일째 날을 상징하는 3 과 7 패턴의 관계가 또다시 나타납니다.



### 수넴 여인의 아들 예언

열왕기하에서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집에 들어가 아이가 죽은 것을 발견합니다. 엘리사가 아이를 다시 살려내자 아이는 일곱 번 재채기를 합니다.

### 열왕기하 4:32-35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 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 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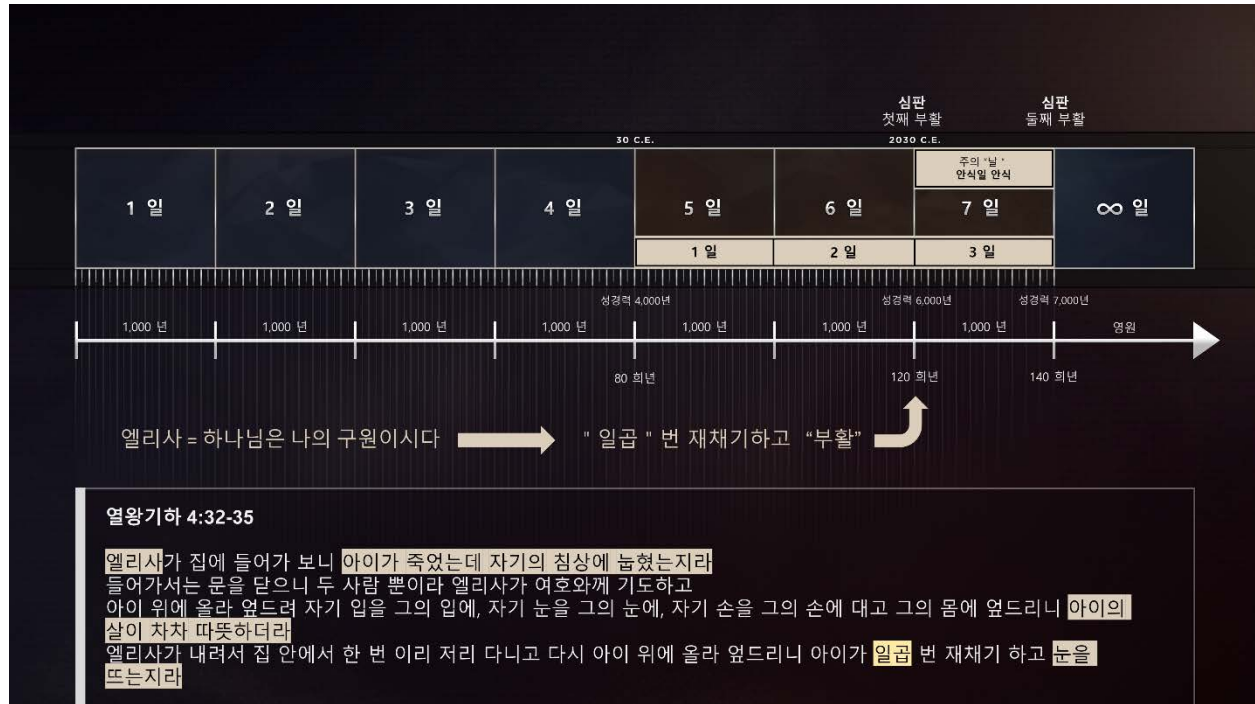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는 뜻입니다. 우리 메시아가 돌아오실 때 이처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 히브리서 9:28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마찬가지로 이 대목에서 엘리사는 아이를 다시 살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차 부활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하는 사실로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7 일째 날에 있을 우리의 부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Slide 8



**열왕기하 4:32-35**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 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엮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엮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 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엮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여우 예언**

메시아는 헤롯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말을 듣고 알 수 없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3:31-35**

곧 그 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아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1 일째 날]과 내일[2 일째 날]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삼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3 일째 날]** 하라  
 그러나 오늘[가신 지 1 일]과 내일[가신 지 2 일]과 모레[돌아오심]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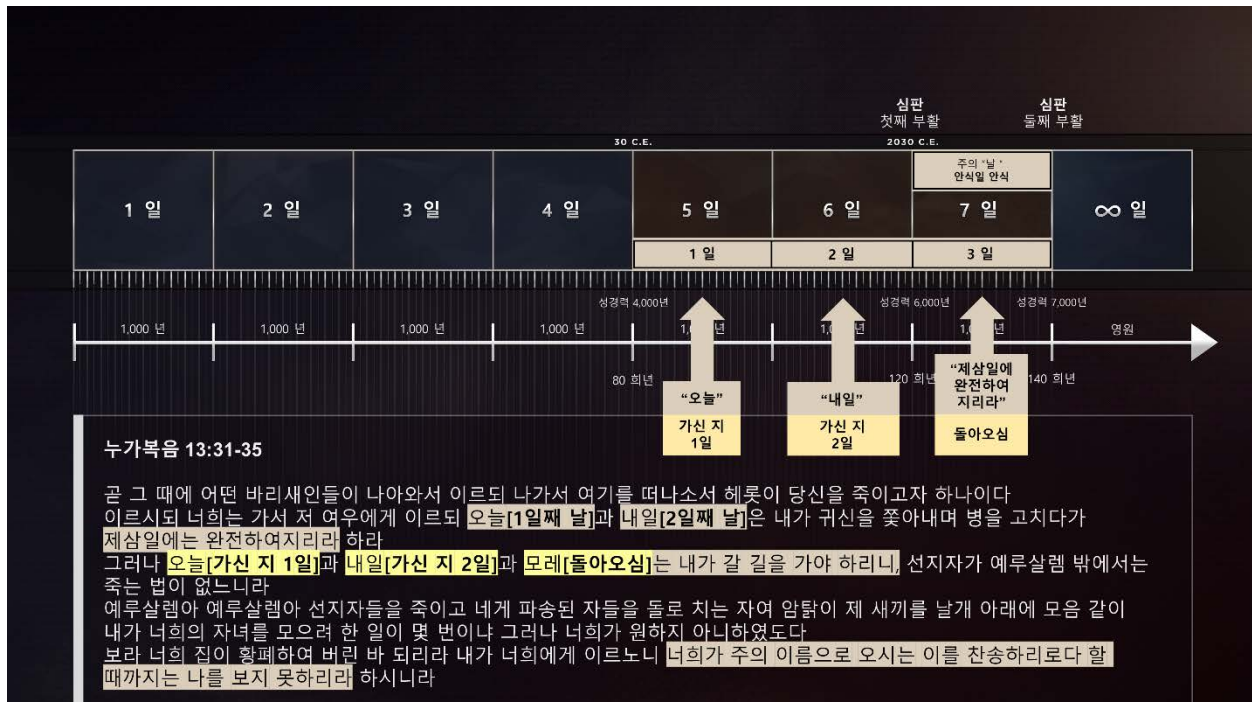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헬라이어, 라틴어, 히브리어 문헌에서 여우는 교활하면서도 지위가 하등한 동물로 나타납니다. 여우는 사자와 대조적으로 하찮고 야비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힘과 존엄성이 부족하여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간계와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헤롯을 여우라고 하시고 메시아는 자신의 일이 영향력있고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는 그의 일이 셋째 날에 완성될 것이라 선포하시면서 셋째 날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과 연결시킵니다. "하루가 천 년" 원리를 적용하면 결론은 명백합니다. 우리가 일곱째 날로도 알고 있는 셋째 날은 메시아가 일하시는 마지막 날이면서 동시에 메시아의 재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Slide 9



## 룻기 예언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에서 보아스는 신랑이신 메시아, 룻은 메시아의 신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메시아가 신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보아스는 룻의 구속자 역할을 합니다.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에는 메시아와 관련된 것들이 아주 많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이러한 메시아 예언 주제들에서 메시아의 타임라인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집중됩니다.

물론 예상대로 메시아의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 **룻기 3:15**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겹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룻에게 지워 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섯”번 되어 준 후 4 장에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 나옵니다.

### **룻기 4:10**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 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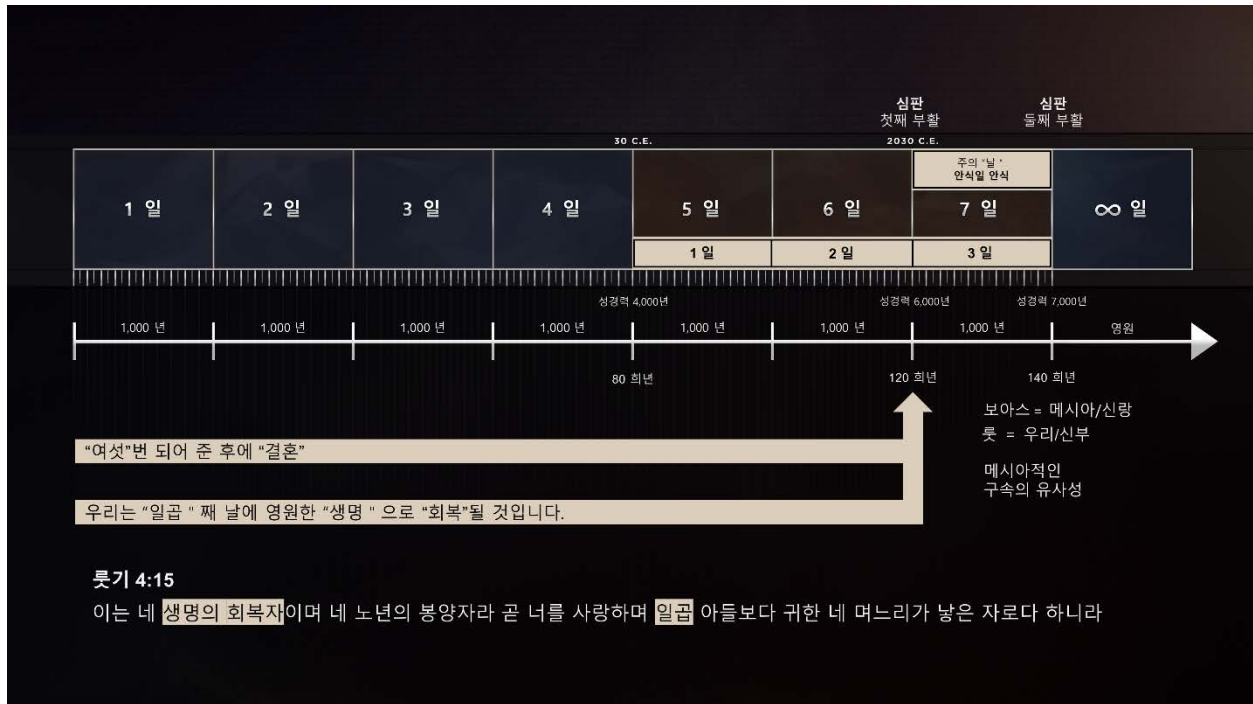
마찬가지로 "하루가 천 년" 원리를 적용하면, 여섯 날 즉 6,000 년이 지난 후에 우리도 어린 양과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께서는 보아스가 룻을 구속한 것처럼 우리를 결혼으로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일곱째 날에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 **룻기 4:15**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요단 강에 일곱 번 예언**

나아만 장군은 나병에 걸려 부정하였고, 낫기를 바라 선지자 엘리사에게 치료를 구합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요단 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면 회복될 것이라 일렀습니다.

**열왕기하 5:8-14**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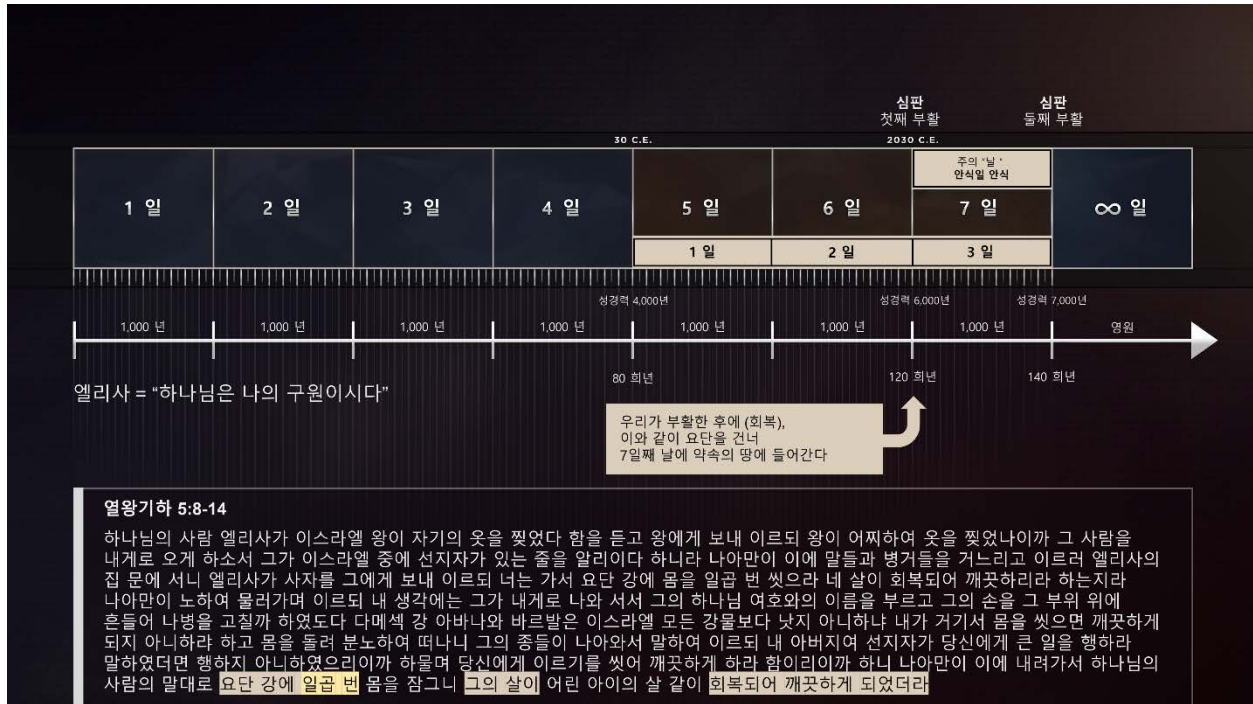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며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

그의 종들이 나아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와 같이 우리도 부활 때 회복될 것이며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Slide 11



## 여호아하스 예언

여호아하스가 통치를 시작하는 것은 메시아께서 통치를 시작하는 때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아하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의미로, 이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가 7 일째 날 즉 성경력 6,000 년에 왕으로 추대되는 것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 열왕기하 11:4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 열왕기하 11:9-14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와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라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와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 열왕기하 11:18-21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맛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와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와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라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칠 세였더라

7-7-7 이 보이십니까?

우리 앞에 펼쳐진 그림은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 왕으로 선포되는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구체적인 시기, 지금쯤이면 분명하게 이해해야 하는 명확한 시기에 일어납니다. 메시아가 강림하셔서 7 번째 해에 왕위에 오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또 이 날은 나팔을 부는 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 장에 따르면 나팔절은 7 번째 달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7 번째 해과 7 번째 월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 예언의 마지막 시간점은 7 일째 날 안식일로, 다가오는 우리의 안식의 날을 예언합니다. 이렇게 해서 완벽해진 7-7-7 의 연, 월, 일에 우리의 왕을 맞이하게 됩니다. 장차 올 7-7-7 의 날에 우리의 메시아는 왕위에 오르실 것이며, 하나님의 대적들은 그 후 진노 속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의 후반부에서 라멕 예언을 다룰 때 7-7-7 이 그레고리력 2030 년과 어떻게 직접 연결되는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2030 년은 또한 성경력 6,000 년, 즉 3 일째이자 7 일째 날이 됩니다.

2030 년은 7-7-7 메시아 예언 타임라인이 발생하는 유일한 해이며, 이후로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Slide 12



### 안식의 날들 예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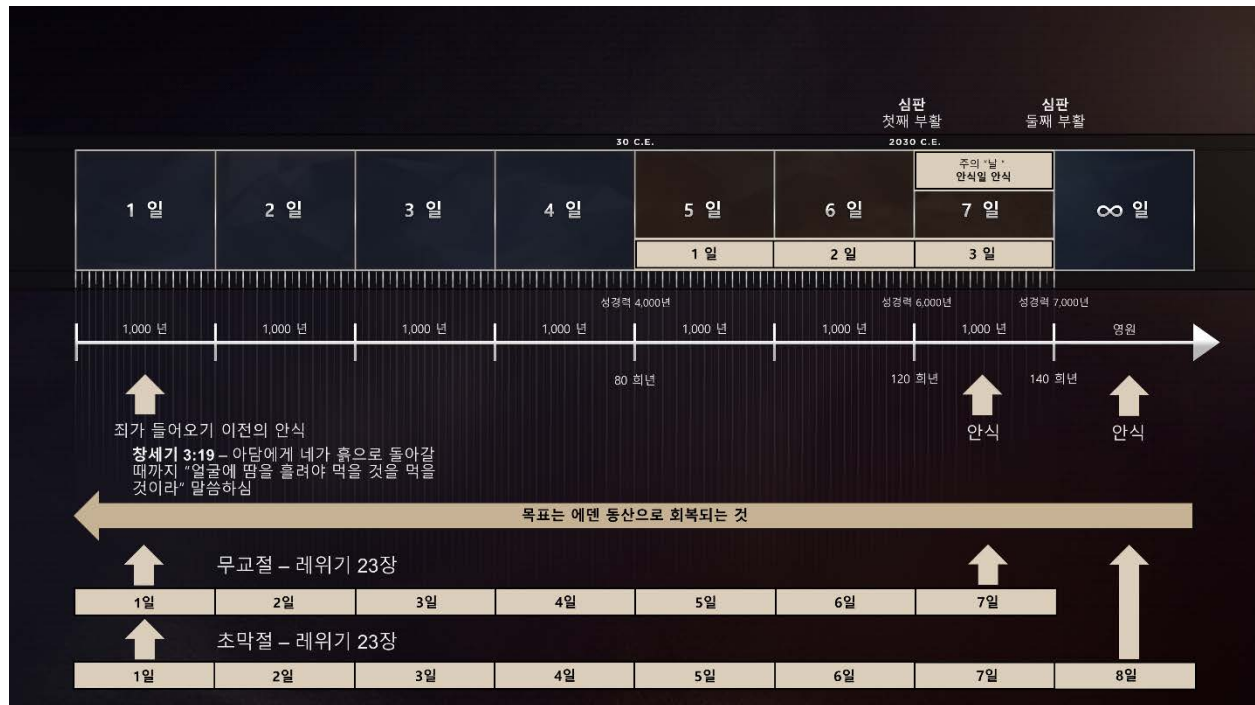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 우리가 7 일째 날 안식일 예언 성취에 들어갈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들어갈 안식이 8 일째 날로 이어지며, 이는 영원을 상징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미 안식을 경험한 또 하나의 날이 있으니 바로 에덴 동산에서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 19 에서 비유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구절에서 아담은 죄 때문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게 될 것이라고 선고받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창조주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고 에덴에서 완전한 안식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죄가 들어온 후 이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은 우리를 다시 시초로, 즉 죄가 들어오기 전의 에덴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첫째 날에 안식을 누렸으나, 죄로 인해 안식을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7 일째와 그에 이어지는 8 일째 날에 인간은 다시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시는 삶을 회복하여 더 이상 고통도, 눈물도, 걱정도, 괴로움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에서처럼 완전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은 레위기 23 장에서 무교절과 초막절 주간에도 특정한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며, 인간이 과거에 경험했거나 앞으로 경험하게 될 동일한 "날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교절에는 1 일째와 7 일째 날에 안식일이 있으며, 초막절에는 1 일째와 8 일째 날에 안식일이 있습니다. 이 두 절기 모두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누렸던 안식과 7 일째에 회복되어 8 일째로 이어져 영원히 지속되는 안식을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 장의 모에딴 *mo'edim* 즉 정한 때는 모두 메시아를 가리키며, 두 번의 오심을 통해 이루실 일 뿐만 아니라 그 시기도 보여줍니다.

Slide 13



## 은에 팔림 예언

요셉이라는 이름은 문자 그대로 "가져간다"는 히브리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동사의 어근인 "아사프(*asaf*)"는 모으다, 수확하다, 가져오다를 의미합니다. 또 이와 같은 어근을 가진 중요한 단어 "아시프(*asif*)"는 "수확"을 의미합니다. 본질적으로 요셉이라는 이름은 수확이나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요셉과 관련된 여러 사건에서도 이러한 주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37: 7 에서 곡식 단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또한 이집트로 "끌려가서" "집과 밭"을

관리하게 됩니다. 파라오의 꿈은 수확에 관한 것이었으며, 그 결과 요셉은 이집트의 수확과 식량 공급을 맡게 되었습니다. 수확 즉 추수를 상징하는 요셉은 은 이십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37: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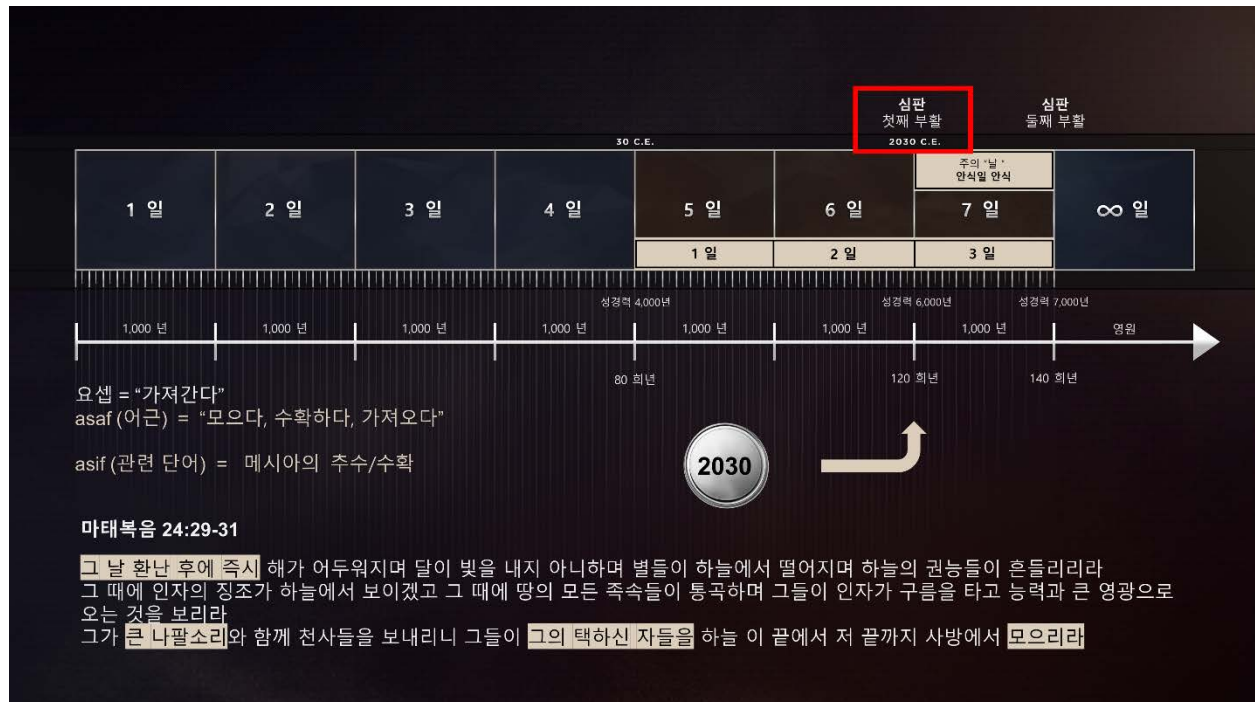
마찬가지로, 메시아도 은 삼십에 팔렸습니다 (마태복음 26:15).

2030 = 메시아의 추수 곧 수확

### 마태복음 24:29-31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Slide 14



### 징벌의 해 예언

이 예언은 2030 년에 있을 첫 번째 부활과 메시아의 재림을 가리키는 가장 명확한 예언 중 하나입니다. 이 예언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배경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설명이 필요하지만 따라가기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보좌 예언에서 설명했듯이 이스라엘은 12 지파로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후 12 지파는 두 왕국으로 나뉘었으며, 10 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 2 지파는 남왕국 유다가 되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모두 영적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 **예레미야 3:6-10**

*요시아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은 이혼당하고 열국에 흩어져 이방인들과 섞였으며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나라에 너무 많이 섞여서 대부분 시간이 흐르며 소실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메시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마태복음 15:2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메시아의 목표 중 하나는 이스라엘 족속을 다시 데려와 에스겔 37 장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유배 후 돌아오지 않았던 이스라엘과 달리 유다 족속 즉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우리 메시아가 이끄시는 하나의 왕국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의 가장 명확한 그림 중 하나가 에스겔 37 장에 나옵니다.

### **에스겔 37:15-17**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예언에 대한 해석을 풍성히 주십니다.

#### **에스겔 37:22**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두 왕국의 회복과 그들이 본토로 돌아오는 사건은 첫 번째 부활 직후에 일어난다고 이 장의 앞선 몇 구절에서 말씀하십니다.

#### **에스겔 37:12-14**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따라서 첫 번째 부활 후에 이스라엘의 분열된 왕국 유다와 이스라엘은 통일을 이루어 본토로 돌아오게 되며, 다윗 왕의 상징과 같은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에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 **에스겔 37:24-25**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

오늘날 유대인으로 알려진 많은 유다 백성들이 1948년부터 그 땅으로 돌아왔지만, 이것은 다가올 특정한 엔드 타임 예언의 성취에 필요했을 뿐이었고,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온다는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분명한 것은 메시아께서 믿음 안에서 접붙여진 이방인들을 포함해 모든 이들을 모으고, 땅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러 다시 오시는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의 법도를 따르지 않으며 그의 율례를 삼가 행하는 데 신중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첫째 부활 전까지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징벌의 기간이 끝나야 합니다.

이 징벌의 기간은 첫째 부활과 그 땅으로 돌아오는 시점에 끝날 것입니다.



첫째 부활과 그 땅으로의 귀환은 언제입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모든 예언에 따르면, 첫째 부활과 그 땅으로의 귀환은 120 희년, 즉 성경력 6,000 년이자 그레고리오력 서기 2030 년에 일어납니다. 이때 3 일째이자 7 일째 날로 알려진 주의 날이 시작됩니다.

2030 년이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징벌이 끝나는 해라고 한 연도와 같은 해입니까?

알아봅시다.

에스겔 4 장에서는 이러한 징벌의 때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날 것인지 알려줍니다.

#### 에스겔 4:4-11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했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삼백구십 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사실 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일 년이니라*

*너는 또 **네**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 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삼백구십 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이십** 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육분의** 일 힉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에스겔은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 390 일 동안 왼쪽으로 누웠습니다. 이것이 390 년이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은 또 유다 족속을 위해 40 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웠습니다. 이것은 40 년이라고 하십니다.

또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형벌이 예루살렘의 포위와 관련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20 과 6 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390 년의 징벌은 예루살렘의 첫 번째 포위로 시작되며, 유다 집에 대한 40 년의 징벌은 예루살렘의 마지막 포위를 불러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 26 장 토라에서는 이스라엘이 징벌을 받을 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그 벌이 일곱 배가 된다고 합니다.

### 레위기 26:18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일곱 배나 더 징벌하리라*

에스겔은 에워싸인 예루살렘으로 얼굴을 향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못할 때 항상 예루살렘의 포위로 징벌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징벌이 시작되는 예루살렘의 포위는 언제였습니까?

이것을 알아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은 여러 차례 포위되었기 때문에 시작점이 정확해야 타임라인도 정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포위된 올바른 시기는 비교적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징벌은 예루살렘의 첫 번째 포위가 시작된 시점에서 시작되며, 그 이전이나 이후가 아닙니다.

징벌 기간은 예루살렘의 첫 번째 포위로 인한 징벌이 시작되기 전에 시작될 수 없으며, 이스라엘이 이미 첫 번째 포위로 징벌을 받은 후에 징벌 기간이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징벌 기간은 실제로 징벌이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는 시점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단서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토판을 가져다가 그 위에 한 성읍 예루살렘을 그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에스겔은 자신과 토판 사이에 철판을 놓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철판이 철벽을 상징하고 에스겔 자신은 포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 포위가 예루살렘의 음식과 물을 제한할 것이라고 들었지만, 철벽은 첫 번째 포위가 성공적이지 않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에스겔 4 장이 기원전 593 년쯤에 작성되었다고 믿고 있으며, 실제로 기원전 588 년에 예루살렘의 포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포위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징벌 기간의 일부였지만, 그 징벌 기간의 시작일 수는 없습니다. 기원전 588 년의 포위는 성공적이었고, 우리는 성공하지 못한 포위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원전 588 년의 포위는 예루살렘의 첫 번째 포위도 아니었으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징벌이 시작된 명확한 시점을 찾아야 합니다. 기원전 588년까지는 이스라엘의 징벌이 이미 어느 정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단서를 바탕으로 하면 예루살렘의 포위 중에서 적합한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이스라엘의 390년 형벌은 BC 701년에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처음 에워쌌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 포위는 성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대한 첫 번째 포위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징벌이 시작된 시점으로 적합하며, 에스겔서 4장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BC 701년이 이스라엘의 징벌 기간의 시작입니다.

BC 701년으로부터 390년은 BC 311년이 됩니다.

BC 311년에 이스라엘이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징벌 390년은 토라에 따라 7배가 됩니다.

$390 \text{년} \times 7 = 2,730 \text{년}$ .

$BC 701(\text{예루살렘의 포위}) + 2,730 \text{년} (0 \text{년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 2030$ .

2030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 유다와 연합하여 에스겔 37장을 성취할 수 있는 바로 다음 번 기한입니다.

메시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다 족속 즉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한 40년 형벌은 서기 3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 **마태복음 23:37-39**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서기 30년 + 40년 = 서기 70년.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다시 포위되었습니다. 이 때가 유다 족속이 회개하지 못했을 때 시작되는 7배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 해에 성전이 파괴되었고, 유다 족속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부에서 우리는 메시아의 죽음부터 서기 70년의 성전 파괴까지 40년 동안에 기록된 기사들을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이 기사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 40년 동안, 닫아 둔 성전 문이 자꾸 열렸습니다.
- 40년 동안, 켜진 채로 유지해야 하는 메노라가 자꾸 꺼졌습니다.
- 40년 동안, 여호와의 제비가 왼손에서만 뽑혔습니다.
- 기이한 일 중 가장 중대한 것으로, 40년 동안 욥 키푸르(대속죄일)에 매달아 놓은 선홍색 실이 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모든 것은 1세기에 유다 족속에게 내린 40년 징벌의 일환으로, 에스겔 4장에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으며 서기 70년 예루살렘과 성전이 에워싸여 멸망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다 족속이 서기 70년에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징벌 기간 40년은 토라에 따라 7배가 됩니다.

40년 x 7 = 280년.

서기 70년으로부터 280년은 서기 350년이 됩니다.

유다 족속이 서기 350년에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징벌 기간 280년은 토라에 따라 7배가 됩니다. 280년 x 7 = 1,960년.

서기 70년(예루살렘의 포위) + 1,960년은 2030입니다.

2030년은 또한 유다 족속이 회개하고 나아와 이스라엘 족속과 연합하여 에스겔 37장의 예언을 성취할 수 있는 다음 가능한 기한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징벌 기한이 역사상 처음으로 정확히 같은 시점에 끝나며, 이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즉, 만약 유다와 이스라엘 족속이 2030년 정해진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징벌 기한은 토라에 따라 다시 7배로 곱해지고, 두 족속의 징벌 종료 시점은 다시는 같은 연도로 일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더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에스겔서 4장의 문맥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언제 회개할 것인지, 그래서 그 징벌이 언제 벗어질 것인지에 대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옆으로 누워 있을 때, 그는 매일 20 세겔씩의 음식만 먹고 육분의 일 힌씩의 물만 마시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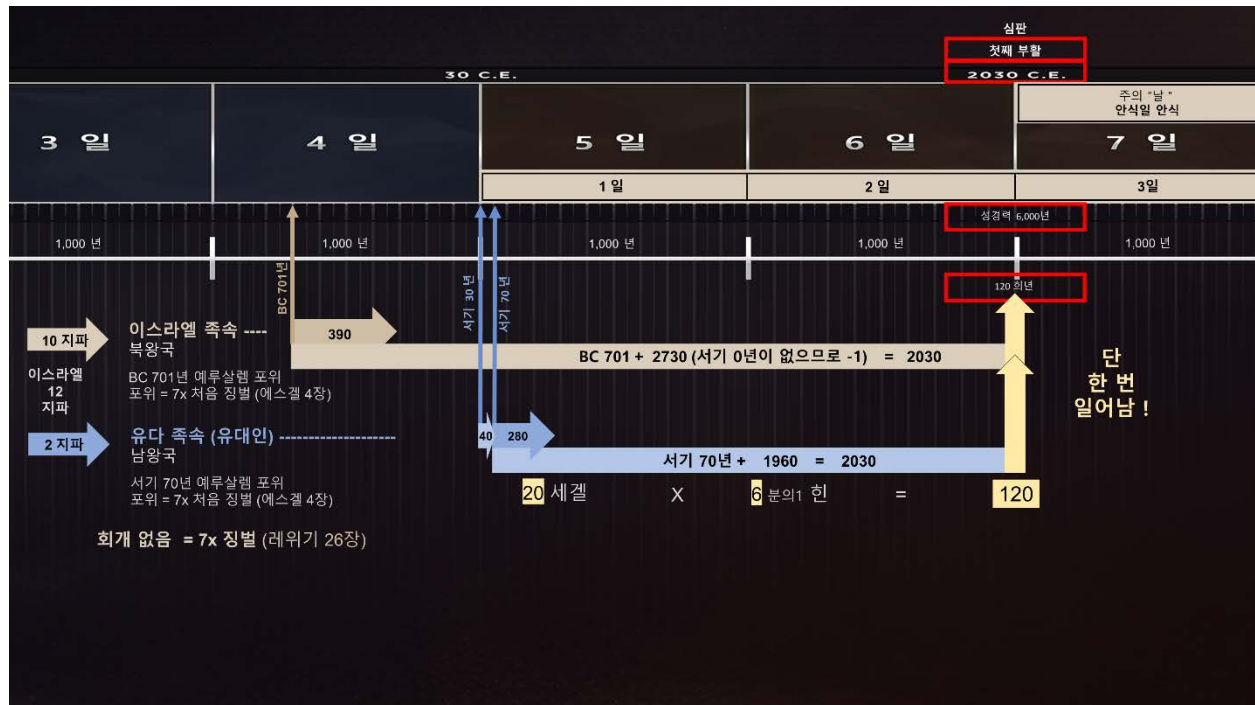
이해가 되십니까?

$$20 \times 6 = 120$$

우리가 유사한 문맥에서 반복적으로 본 바와 같이, 120은 재림과 첫째 부활의 메시아의 예언적 시간 점으로서, 120 희년을 의미합니다..

120 희년은 그레고리력 서기 2030년입니다. 이는 성경력 6,000년이며, 3일째이자 7일째 날에 해당됩니다. 이 해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이 회개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메시아의 통치 아래에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해입니다.

Slide 15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할 또 하나의 관련된 예언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족속의 징벌 기간을 왼쪽으로 누워서 담당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 **에스겔 4:4**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그 다음 에스겔은 유다 족속의 징벌 기간을 오른쪽으로 누워서 담당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 **에스겔 4:6**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사십 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일 년이니라*

마지막으로 에스겔은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을 향해 옆으로 누우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 **에스겔 4:7**

*너는 또 네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 왼쪽과 오른쪽으로 누워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포위와는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분명 어떤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연결해 보면, 타임라인에서 이스라엘 족속의 징벌 기간은 포위 사건의 왼쪽에서 시작해야 하고, 유다 족속의 징벌 기간은 포위 사건의 오른쪽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예언적 시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예언이 요구하는 것과 정반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포위 사건 뒤 오른쪽 시간에서 징벌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언처럼 포위의 왼쪽 시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다 족속의 경우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유다의 경우, 포위 사건 뒤 형벌 기간이 이미 40년 전 왼쪽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언에 따라 포위 사건의 오른쪽 시간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타임라인이 예언의 요건과 정확히 반대로 뒤집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오른쪽에 있어야 할 것이 왼쪽에 있고, 왼쪽에 있어야 할 것이 오른쪽에 있을까요?

무엇을 잘못 이해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예측 가능하고 예상됐던 일입니다.

우리는 예언을 주어진 환경, 언어, 문화적 배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문화와 언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생각하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와 같은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합니다. 이와 같이 이 예언은 고대 근동의 배경과 문화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Slide 16



우리의 타임라인은 서구 문화와 관행을 기반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시청자에게 더 쉽게 전달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에스겔이나 다른 히브리인들이 타임라인을 구성하는 방식과 정확히 반대입니다. 따라서 예언이 읽히도록 의도된 방식에서 보면 우리의 오른쪽은 왼쪽이 되고, 우리의 왼쪽은 오른쪽이 되어, 명백하게 불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쉽게 교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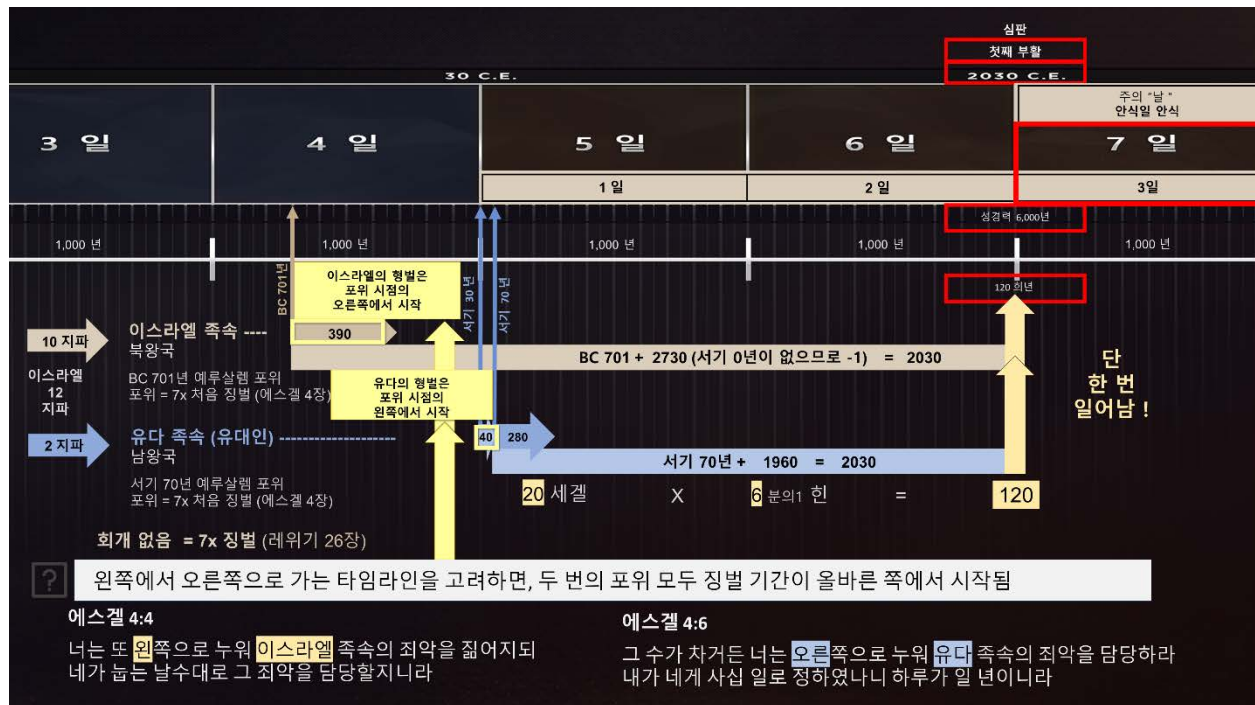
에스겔이 했던 방식으로 이 타임라인을 구성한다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타임라인을 히브리식으로 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면, 이스라엘 족속의 형벌은 예루살렘의 첫 번째 포위의 왼쪽 시간에, 유다 족속의 형벌은 예루살렘의 마지막 포위 공격의 오른쪽 시간에 위치하게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간단합니다. 타임라인이 프레젠테이션을 목적으로 뒤집혀 있기 때문에, 징벌 기간의 시작점도 두 차례의 포위 시점에 맞추어 각각 뒤집혀야 합니다.

타임라인이 히브리식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의 징벌 기간의 시작점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뒤집혀야 하고, 유다 족속의 징벌 기간의 시작점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뒤집혀야 합니다.

좌우가 뒤바뀐 타임라인을 고려해서 수정하면, 징벌 기간은 두 차례 포위의 올바른 쪽에서 각각 시작하게 됩니다.

Slide 17



본 프레젠테이션에서 특별히 애정을 기울인 예언인 "라멕 예언"으로 이 발표를 마무리하기 전에, 메시아께서 말씀하신 "그 날과 그 때를 모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메시아께서 마태복음 24:36 에서 말씀하신 유명한 구절 아무도 모르는 그 "날과 때"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마지막 때까지 봉인된 타임라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게 될 것이며,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다니엘과 메시아는 모두 이를 확인해줍니다.

이것은 서로 모순되는 말이 아니라,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것을 메시아께서 정확하게 풀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새로운 것이 아닌 선지자 다니엘이 이미 밝힌 진리를 다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다음 구절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메시아께서 현재 시제로 말씀하신 것을 복사해서 범위를 넘어 미래 시제에 상습적으로 잘못 붙여넣기 되는 구절입니다.

### 마태복음 24:36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읽기를 시작해서 이 부분에서 멈추고, 그 결과 유감스럽게도 의미 있는 이해도 멈추게 됩니다. 전체 문맥 속에서 이 문장의 뜻을 종종 놓친다는 사실과, 이 구절이 아무도 그 날과 때를 모른다 *knows* 는 현재 시제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아무도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라 *will ever know* 며 미래 시제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날과 때”는 아마 문자적 이해와 더불어 관용구적으로도 이해하도록 의도되었을 것입니다. 둘 다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메시아는 종종 관용구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메시아께서 요한복음 1 장에서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1 세기 유대인이 “고양이가 네 혀를 가져갔니?”<sup>2</sup>라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메시아는 부활과 천년 왕국에 대해 유대인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도의 관용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간단히 말해 메시아는 나다나엘에게 그가 마지막 날에 살아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메시아의 말씀을 통해 나다나엘은 자신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날”은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께서 이 말씀으로 나다나엘과 소통하셨을까요?

---

<sup>2</sup>“꿀 먹은 병어리”의 영어 표현

이것은 1 세기 유대인의 관용 표현인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를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천년 왕국에서 살며 토라를 배운다는 뜻입니다.

천년 왕국 또는 무화과 나무의 주의 날 개념은 스가라를 비롯한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 스가라 3:10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날"은 주의 날, 즉 1,000 년 통치의 시작을 의미하며 부활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메시아의 말씀을 통해 나dana엘은 자신이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 날"은 아직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나dana엘은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 요한복음 1:49

*나dana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메시아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소통하시면서 수십 가지의 유대 관용구를 사용하셨고 이것은 많은 예시 중 하나일 뿐입니다.

"날과 때"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메시아의 재림과 연결되는 것은 역시 관용구적 표현일 가능성이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위기 23 장에는 메시아가 무엇을 하셔야 하며 언제 이루어야 하는지를 완전하게 가리키는 모든 메시아 예언 모에딤(절기)이 있습니다. 메시아께서는 초림하셨을 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의 메시아 예언을 모두 그 정한 순서대로 성취하셨습니다.

메시아가 다음으로 하셔야 할 일은 부활을 위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는 레위기 23 장에 나오는 7 일째 날 샤밧(안식일)이 예언적으로 성취될 때 이루어질 것이며, 메시아의 1,000 년 통치를 예언적으로 상징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이 나팔 소리와 외침의 날, 그리고 7 번째 천년이 시작되는 우리의 안식일과 같은 주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 후 메시아 예언 절기는 순서대로 나팔절 즉 옴 테루아 *Yom Teruah* 가 옵니다. 다음은 속죄일이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이 이어집니다. 히브리어로 '옴 테루아'는 나팔절을 의미하며, 문자적으로는 외침과 나팔 소리의 날을 뜻하는데, 이는 주제적으로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또한 나팔절은 안식일이기도 해서

주제적 요건이 또다시 충족됩니다. 나팔절은 항상 일곱째 달에 있는데 이것은 일곱째 천년의 시작에 재림이 있을 것임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또한 일곱째 천년 즉 일곱째 "날"이 바로 "주의 날"임을 알고 있습니다. *테루아*는 "주의 날"의 시작과 밀접한 연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테루아*는 요엘서에 나오는 두려운 "여호와의 날(주의 날)"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 **요엘 2:1-2**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테루아]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 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따라서 옴 테루아는 모든 예언적 요건에 일치하는 유일한 날입니다.

나팔절이 어떻게 관용적인 관련이 있을까요?

이 메시아의 총 여행연습 날은 주의 날 중 유일하게 그 월의 첫날에 오는 예언적 날입니다. 따라서 그 날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는 달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달을 관찰해서 그 날이 되었음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날을 진정으로 선언하거나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도 모르는 날"이라는 표현은 메시아의 재림하시는 나팔절에 대한 탁월한 관용구일 수 있습니다. 달의 주기를 분 단위까지 계산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 현대에 이르러서야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옴 테루아는 관용적으로 "아무도 모르는 날"일 수 있었습니다.

?
1세기 몰랐음

→

✋
미래 - 도둑 같지 않게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
미래 - 도둑 같이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되

히브리 관용구?

→

나팔절은 유일하게 월의 첫날에 오는 예언적 날이다. 따라서 그 날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는 달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마태복음 24:36**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레위기 23장 - 메시아 예언의 날들**

초림	유월절	7번째 "날" 사망	→	재림	
↓	무교절	1,000년 통치	→	↓	나팔절
	초실절	7번째 달	→		속죄일
	오순절	7번째 천년	→		초막절/수곳

→  
 테루아 → 외침 / 나팔

←  
 ← 외침 / 나팔 / 안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말씀에 담긴 문자적 의미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흥미로운 히브리어 관용구 이상의 의미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몇 구절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42**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따라서 "그 날과 그 때"는 확실히 주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 24:36 에서와 같이 미래 시제가 아닌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 세기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실 날을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 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명령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다면 결국 그 날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 곧 살펴보겠지만, 먼저 좀 더 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메시아께서 자신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 마태복음 24:3

*예수께서 감람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은 왜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나며 세상의 끝에 주의 임하심에 대한 징조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일까요?

메시아께서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 마태복음 24:1-2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성전이 언제 파괴되는지 뿐만이 아니라, 메시아가 언제 돌아오실 것인지도 알고 싶었습니다. 즉 제자들은 시대의 종말에 대한 타임라인을 묻은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성전이 파괴된다면 그것이 틀림없이 시대의 종말을 의미하며, 따라서 메시아도 반드시 돌아오실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는 잘못이 있으며, 지난 2,000 년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성전의 파괴에 이르는 사건들을 말씀하신 후, 성전 파괴 이후에 일어날 사건들과 그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들을 꼭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라는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메시아께서 그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는지를 밝히기 전에, 선지자 다니엘이 오래 전에 같은 질문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다니엘 12:6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다니엘이 말하는 놀라운 일이란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대환난과 장래에 있을 부활에 대해 묻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대환난이 언제 끝날지, 그리고 이전 구절에서 언급된 부활이 언제 일어날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 다니엘 12:1-2

*그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 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로부터 우리는 대환난이 있고 그 후에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는 히브리적 사고에서 고난의 시간 후 모임이나 추수가 있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게 들리는지요?

메시아께서는 마태복음 24 장에서 거의 같은 질문에 대해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15 절에서 선지자 다니엘의 말씀을 언급한 후, 우연찮게도 메시아께서는 다니엘서 12 장 1-2 절과 매우 유사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환난의 시기와 그 이후의 모임을 언급하셨습니다.

## 마태복음 24:29-31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다니엘은 이러한 일들이 끝나는 시기를 질문했고, 메시아는 이러한 일들의 끝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대환난과 부활이 성취되는 시점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물었고,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혼란스럽고 좌절감을 느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답변은 타임라인의 기간은 알려주지만, 이러한 일들이 끝나는 시점을 알려주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일들이 언제 완료될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다니엘이 명확한 답변을 요청했을 때, 그 타임라인의 끝은 아직 다니엘 자신이나 어느 누구도 알 때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 다니엘 12:9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같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다니엘은 대환난과 부활의 시점을 아직 알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그 시점이 "마지막 때"까지 봉인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메시아께서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 우연일까요?

메시아는 대환난과 장차 있을 부활이 자신의 재림과 명확히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천사도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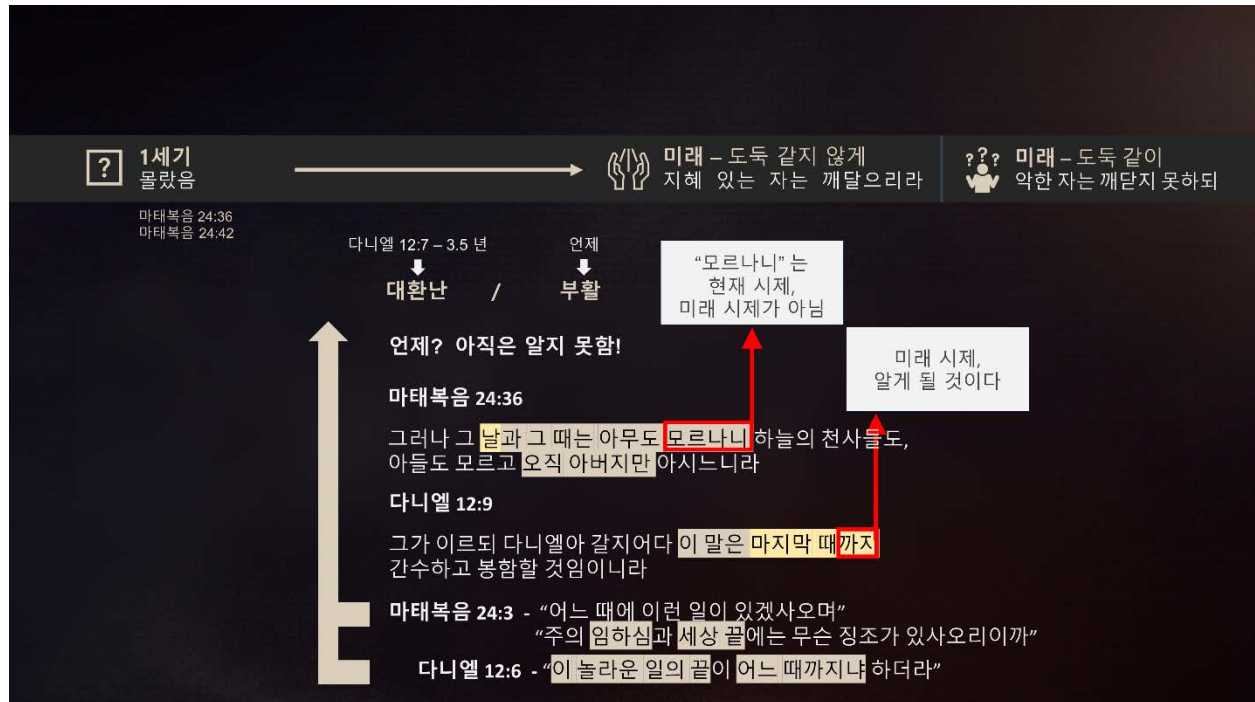
다니엘도 대환난과 장차 있을 부활의 시기를 알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최소한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아께서도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니었습니다.

문법에서 동사의 시제는 중요합니다. 현재 모르는 것과 미래에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Slide 19



이 세부적 내용들은 다니엘 12:9 에 따라 마지막 때까지 봉인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의 요점은 이러한 세부 사항들이 마지막 때까지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아버지만이 그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언젠가 풀릴 때까지 봉인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1 세기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메시아의 재림 시기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적절한 때까지 숨겨지고 봉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도행전 1:6-7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 왕국은 메시아의 1,000 년 통치, 즉 주의 날이 시작될 때 회복됩니다. 1 세기 사람들은 그 시기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시기는 “마지막 때”까지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아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거의 2,000 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무엇을 알기로 되어 있습니까? 정말 알기로 되어 있습니까? 만약 알 수 있다면 언제가 적당한 때입니까?

메시아와 다니엘은 같은 방식으로 대답했는데 그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니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 12 장에 언급된 대환난과 부활의 마지막 때의 봉인이 해제되는 것은 한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 다니엘 12:4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대환난과 부활이 있는 마지막의 시기가 마지막 때까지 봉인된다고 하면서 그것을 풀기 위해 지식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식의 증가로 대환난과 부활의 타임라인의 봉인이 해제됩니다.

정확히 무엇에 대한 지식이 증가할까요? 문맥에 따라 대환난과 장차 올 부활의 봉인된 시기에 대한 지식이 증가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 다니엘 12:1

*그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 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 시기는 봉인되고 감추어져 있지만 지식이 더함에 따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만 이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메시아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 일들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알아야만 합니다.

1 세기에는 이 일들을 알 수 없었지만, 환난과 부활의 타임라인에 대한 지식이 점점 더해진 후에는 결국 이 타임라인을 미리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다니엘 12:9-10**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따라서, 타임라인은 단순히 봉인되어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식이 더함으로 점진적으로 그 봉인이 해제된다고 합니다.

또 악한 자들은 이 타임라인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들만이 깨달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닫지만 악한 자들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예언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몇 천 년 동안 더해졌기 때문에, 다니엘, 제자들, 메시아, 천사들조차 알 수 없었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에 대한 답을 이제는 알게 될 것입니다.

**☑ 포함됨**      **📖 포함이 해제됨 - "마지막 때"에 지식이 더하여**

**? 1세기 몰랐음**      **🙌 미래 - 도둑 같지 않게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 미래 - 도둑 같이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되**

대환난의 "때"와 부활의 "때" 는 지식이 더하는 "마지막 때" 까지 포함될 것이다.

**다니엘 12:9-10**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감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포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

다니엘 12:6 -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메시아 타임라인은 수많은 조각으로 된 복잡한 대형 퍼즐과 같습니다.

직소 퍼즐을 완성하는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보통 바깥 경계부터 맞추기 시작합니다. 이 틀이 퍼즐의 전체 크기가 됩니다. 이 방법이 가장 쉽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모든 조각들을 그 틀 안에 맞추게 됩니다.

나머지 조각들을 모양과 흐름에 맞게 자세히 맞춰가기 시작하면서 퍼즐은 점점 더 빠르게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퍼즐은 점점 더 자세하고 명확해져서 남은 조각들을 맞추기가 점점 더 쉬워집니다.

성경 예언의 과정도 동일합니다. 지식은 수천 년 동안 점점 더해져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큰 그림을 보고 있으며, 남은 조각들은 빠른 속도로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완성되어 갑니다. 다니엘 12 장에 따르면 마지막 조각들은 미시적인 타임라인에 들어가는 조각들로, 특정한 날과 때로 바로 이어지며 마태복음 24:36 절과도 다시 직접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환난이 끝나는 날과 부활의 날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살지 않았습니다."

1 세기 사람들 즉 제자들, 메시아 그리고 천사들조차 환난이 끝나는 날이나 부활의 날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에 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4:6**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메시아의 말씀으로는 끝은 멸망의 가증한 것이 시작되는 3년 반 대환난에 가까워질 때에 옵니다.

**마태복음 24:14-16**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다니엘서에서는 지식이 더함에 따라 봉인되고 숨겨진 것이 마지막 때 시기적절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혜 있는 자들만 알 수 있고 악한 자들은 알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메시아도 같은 의견이실까요? 살펴봅시다.

**지혜 있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32-33**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지혜 있는 자들은 징조를 깨닫고 가까웠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12장과 일치합니다.

1세기 사람들은 그 시기가 봉인되어 있던 것으로 보아 마지막 때에 살지 않았습니다. 봉인된 것은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마태복음 24:36**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1세기 당시에 현재 시제로 표현되었고, "마지막 때"까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12장과 일치합니다.

메시아께서는 1 세기 당시 아무도 그 날과 그 시를 알 수 없다고 언급하시고, 나아가서 미래에도 알 수 없되 어떤 사람들만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마태복음 24:37-41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몰랐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여 홍수가 나서 멸하였습니까?

지혜 있는 자들이었습니까 악한 자들이었습니까?

깨닫지 못한 것은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Slide 21

메시아의 말씀도 다니엘 12 장 말씀과 같습니다.

악한 자들은 노아의 때에 그랬던 것처럼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종말은 밤에 도둑이 찾아오듯 갑작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1 세기에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장래에도 여전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음으로 강조하신 중요한 포인트로, 다시 현재 시제 문제를 소환합니다.

#### **마태복음 24:42-44**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1 세기 당시에는 아무도 그 날을 모르게 되어 있었지만 다니엘 12 장에 따르면 1 세기 사람들은 아무도 그 날을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알지 못하는 자들은 깨어 있으라 명하십니다. 깨어 기다리고 있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알게 되고 그래서 메시아가 도둑같이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 12 장에 따라 지혜 있는 자들은 그 타임라인을 알고 이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다음으로 메시아께서 가르쳐 주신 중요 포인트입니다. 메시아는 다니엘 12 장을 단순히 재확인해 주셨고 다시 미래를 가리키십니다. 깨어서 기다리고 있으면 메시아는 도둑처럼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그 적절한 때를 알게 됩니다.

#### **마태복음 24:45-47**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다시 말하지만 지혜 있는 자는 깨닫고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통합됨** 📄 **통합이 해제됨 - "마지막 때"에 지식이 더하여**

**1세기 몰랐음** → **지식이 더함** → **미래 - 도둑 같지 않게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 **미래 - 도둑 같이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되**

마태복음 24:36  
 마태복음 24:42  
 사도행전 1:7

다니엘 12장

마태복음 24:32-33  
 마태복음 24:42-44  
 마태복음 24:45-47

마태복음 24:37-41

↑ **미래 시제**  
 깨어 있음 = 도둑같이 오지 않으심

**마태복음 24:45-47**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다니엘 12:10**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마태복음 24:48-51**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 메시아는 누가 그 날과 그 때를 깨닫지 못할지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메시아보다 수백 년 앞서 말한 것처럼, 그 날과 그 때를 깨닫지 못할 사람들은 바로 악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메시아가 말씀하셨듯이, 지혜 있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깨달을 것입니다.

☑️ **통합됨**
📖 **통합이 해제됨 - "마지막 때"에 지식이 더하여**

❓ 1세기 몰랐음  
마태복음 24:36  
마태복음 24:42  
사도행전 1:7

📈 지식이 더함  
다니엘 12장

👉 미래 - 도둑 같지 않게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마태복음 24:32-33  
마태복음 24:42-44  
마태복음 24:45-47

👤 미래 - 도둑 같이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되  
마태복음 24:37-41  
마태복음 24:48-51

**미래 시제**

**날과 때**를 모름 = 악함

**마태복음 24:48-51**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얽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다니엘 12:10**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따라서 메시아께서 악인들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오신다는 말씀은 곧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예상된 날과 때에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 12 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으며 메시아는 이미 알려진 것을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것 뿐입니다.

☑️ **통합됨**
📖 **통합이 해제됨 - "마지막 때"에 지식이 더하여**

❓ 1세기 몰랐음  
마태복음 24:36  
마태복음 24:42  
사도행전 1:7

📈 지식이 더함  
다니엘 12장

👉 미래 - 도둑 같지 않게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마태복음 24:32-33  
마태복음 24:42-44  
마태복음 24:45-47

👤 미래 - 도둑 같이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되  
마태복음 24:37-41  
마태복음 24:48-51

**마태복음 24:45**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마태복음 24:48-51**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얽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다니엘 12:10**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에게는 메시아가 도둑처럼 오실 것이며 그들은 그 오시는 시간을 미리 알지 못할 것입니다.

### **요한계시록 3:3**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 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를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내용 중에서 너는 사데 교회를 말하며 사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평판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악한 자들로 평가되며 메시아가 오시는 때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도둑처럼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반대 역시 사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회개하면 메시아가 오실 때를 알게 될 것이며, 메시아는 도둑처럼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즉 다니엘 12 장을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메시아는 도둑같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들은 환난과 부활의 때를 깨달을 것입니다.

### **요한계시록 16:15**

*보라 내가 도둑 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말씀하지만 악한 자들에게 메시아는 도둑같이 오시며 그들의 행사는 드러날 것입니다

### **베드로후서 3:10**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악한 자들에게 메시아는 도둑같이 오십니다.

### **데살로니가전서 5:1-3**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때와 시기를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도둑같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와 시기를 아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환난과 부활의 시기를 깨달을 것입니다.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 데살로니가전서 5:4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Slide 25

**통합됨**      통합이 해제됨 - "마지막 때"에 지식이 더하여

1세기 몰랐음 → 지식이 더함 → 미래 - 도둑 같지 않게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 미래 - 도둑 같이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되

마태복음 24:36  
마태복음 24:42  
사도행전 1:7

다니엘 12장

마태복음 24:32-33  
마태복음 24:42-44  
마태복음 24:45-47  
요한계시록 3:3  
데살로니가전서 5:1-3

마태복음 24:37-41  
마태복음 24:48-51  
요한계시록 3:3  
요한계시록 16:15  
베드로후서 3:10  
데살로니가전서 5:1-3

**데살로니가전서 5:4**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다니엘 12:10**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어떤 날 일어나기로 예정된 일이 일어날 때 놀라지 않으려면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십시오. 알았으면 놀라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놀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모를 것이고 그래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을 것이고 그래서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메시아와 바울 또한 다니엘 12 장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뿐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알 것입니다.

### 누가복음 21:28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

악한 자들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 누가복음 12:56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한 마디로, 주변 문맥과 동사의 시제, 다니엘 12 장과의 명확한 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24:36 과 비슷한 구절들에서 메시아가 전달하시려는 핵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요한계시록 3:3 으로 다시 가서 무슨 말씀인지 자세히 살펴봅시다.

## 요한계시록 3:3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 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메시아의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그 날과 그 때를 결코 알 수 없다고 말하기 위해 인용하는 구절과 정확히 같은 표현을 하면서도 매우 중요하고 심오한 사실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깨어 주시하고 있지 않는다면 메시아는 도둑처럼 오실 것이기에 그가 어느 때에 이르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 구절이 참이라면, 그 반대도 참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깨어 있다면 그는 도둑처럼 오시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주시하고 있어야 합니까? 왜 지식을 더하기 위해 이 예언들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알기 위해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는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메시아께서 말씀하신 요점도 완전히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 날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알 수 있도록 됩니다. 그렇다면 그 날을 알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날을 몰랐다면 매우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날과 때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해 더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항상 옳은 한 가지 사실은 그 모든 구절들이 다니엘서 12 장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 **통합됨**

📄 **통합이 해제됨 - “마지막 때”에 지식이 더하여**

? **1세기 몰랐음**  
마태복음 24:36  
마태복음 24:42  
사도행전 1:7

📈 **지식이 더함**  
다니엘 12장

👉 **미래 - 도둑 같이 지혜**  
도둑 같이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 **미래 - 도둑 같이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되**  
마태복음 24:37-41  
마태복음 24:48-51  
요한계시록 3:3  
요한계시록 16:15  
베드로후서 3:10  
데살로니가전서 5:1-3  
누가복음 12:56

↑  
**왜 지식이 더하는가?**  
↑  
**왜 주시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4**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다니엘 12:10**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제 그 날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예언적 지식이 더해졌을까요? 타임라인의 봉인이 해제될 만큼 “마지막 때”에 가까웠을까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세밀하게 제시할 수 있는 메시아의 시간 지점은 창세기 5 장 라멕 예언에 있습니다.

### 라멕 예언

성경을 연구할 때 특히 히브리 이름들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세기 5 장에서 비슷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5 장에는 이 이름들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 아담
- 셋
- 에노스
- 게난
- 마할랄렐
- 야렛

- 에녹
- 므두셀라
- 라멕
- 노아

이름들은 모두 히브리어로 뜻이 있습니다.

- 아담은 "사람"
- 셋은 "정해짐"
- 에노스는 "언젠가 반드시 죽는"
- 게난은 "슬픔"
- 마할랄렐은 "하나님의 찬양"
- 야렛은 "그가 오시리라"
- 에녹은 "가르침"
- 므두셀라는 "죽음이 올 것이다"
- 라멕은 "절망한 자들"
- 노아는 "안식"

모두 맞추어 보면 예언적으로 *"사람은 반드시 죽는 것과 슬픔이 운명으로 정해졌다. 하나님의 찬양! 그가 오셔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절망하는 자들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다"*는 뜻이 됩니다.

이 메시아 예언에서 메시아께서 두 번 오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력 4,000 년에 초림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3 일째 날이자 7 일째 날에 부활할 것이며 그때 우리는 장차 올 예언적이고 메시아적인 샅바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정말로 놀랍고 성경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았고, 노아는 "안식"을 뜻합니다. 라멕은 777 세까지 살았으며 따라서 7-7-7 은 주의 날에 메시아를 통해 우리가 들어가게 될 안식과 연결됩니다. 노아가 라멕에게서 난 것이 진실이듯이, 안식이 7-7-7 에서 올 것도 진실입니다.

이제 7-7-7 코드를 풀기만 하면 됩니다.

우선 세 개의 7 이 3 과 7 로서 이미 분명히 3 일째이자 7 일째 날과 연결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메시아 예언 시기의 메커니즘에서 7이라는 숫자는 항상 7 번째 천년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7 중 하나가 연도를 나타낸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는 7 과 메시아의 재림 시기의 관련성에 있어 시종 일관된 예언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7 이 연도를 나타낸다면 나머지 두 개의 7 은 논리적으로 무엇을 나타낼까요?

7-7-7 중 하나의 7 이 연도를 나타낸다면, 나머지 두 개의 7 은 일과 월을 나타냅니다. 마치 시계 바늘이 정확한 시간을 가리켜 알려 주는 것처럼 세 개의 7 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7-7-7 은 예언적 메시아 시간점으로서 연, 월, 일을 나타냅니다.

## 연

7 이 연도로서 7 번째 천년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7 번째 천년은 또 120 번째 희년이기도 합니다. 희년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예언의 해일 뿐만 아니라 땅의 안식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중요해질 것입니다.

## 월

첫째 부활은 토라, 문서, 선지자, 메시아, 바울의 말에 따라 나팔 소리와 외침이 있는 메시아의 총 예행연습 날에 일어나야 합니다. 메시아가 재림하시기에 앞서 외침과 나팔 소리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과 패턴이 반복됩니다. 숫자와 비유에 모두 해당되는 모에딤은 단 하나, 나팔절입니다.

### 레위기 23:24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 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나팔절은 성취 순서상 다음 차례 절기입니다.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는 모두 7 번째 달에 있으며, 이는 다시 한 번 3 일째이자 7 일째 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3 과 7 의 시간 지점입니다.

욘 테루아는 문자 그대로 외치는 날 또는 나팔 부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외치는 것과 나팔 부는 것 모두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유일한 날입니다. 나팔절 즉 욘 테루아는 안식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는 이후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나팔절은 성경력 7 번째 달에 대한 예언 요건을 충족합니다.

## 일

샤밧 안식은 한 주간의 7 일째 날입니다. 라멕 예언에 따르면 메시아의 재림은 우리가 1,000 년간 안식하는 것이며 이는 샤밧이 예언적으로 성취되는 것이고, 정확히 7,000 년, 정확히 7 월 나팔절일 뿐만 아니라 정확히 7 일 샤밧에 일어나야 합니다.

7,000 년에 오는 120 번째 희년은 7 번째 해를 나타내며 이는 안식입니다. 나팔절은 7 번째 달을 나타내며 이는 안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샤밧은 7 번째 날을 대표하며 이는 안식입니다.

세 번의 안식이 모든 7 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로써 다시 한 번 3 일째이자 7 일째 날에 연결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들어가기로 약속받은 안식이 예언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7 천년, 7 월, 7 일은 당연히 단 한 번 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 한 번의 순간으로,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이러한 시점이 실제로 있기는 한 것인지, 그리고 있다면 언제일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2030 년 메시아의 재림을 가리키는 수많은 패턴과 예언이 올바르게 해석되었다면, 2030 년의 나팔절은 반드시 7 번째 날인 샤밧에 해당해야 합니다<sup>3</sup>. 2030 년의 옴 테루아는 반드시 샤밧이어야 하며, 그렇다면 단 한 번의 독특한 순간이자 수천년간 봉인되어 있던 7-7-7 의 연, 월, 일이 이제 드디어 드러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메시아 2030 프레젠테이션에서 다룬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2030 년은 성경력 6,000 년, 120 희년, 그리고 7 번째 천년의 시작임을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나팔절은 항상 성경력(유대력) 7 번째 달에 있으니 확인해 보십시오!

마지막 테스트로 2030 년의 나팔절이 7 일째 날인 샤밧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2030 년은 메시아의 재림의 해가 아닐 가능성이 큼니다.

무엇을 알아냈을까요? 2030 년의 나팔절이 실제로 7 일째 날인 안식일에 시작된다는 사실은 이제 전혀 놀랍지 않으며, 이로써 7 일째 날인 안식일에 예언적 안식의 성취에 들어가는 라멕 예언이 성취됩니다.

2030 년의 옴 테루아는 7-7-7 이 단 한 번 충족되는 메시아 예언의 시간점이며, 앞으로 올 것이고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 히브리서 10:37

---

<sup>3</sup> 나팔절은 유대력으로 제 7 월 첫날임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창세기 4 장에 라멕의 777 과의 관련성이 또 숨어 있습니다.

#### 창세기 4:23-24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싘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 배일진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칠 배이리로다 [창세기 5 장에 나오는 라멕과 다른 라멕]

몇 구절 앞서 가인은 만약 누군가가 아벨의 죽음에 대해 복수한다면, 그 자는 일곱 배로 벌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 창세기 4:15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에게는 칠 배였지만, 라멕에게는 칠십칠 배였습니다.

#### 창세기 4:24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 배일진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칠 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주제는, 죽임을 당한 자들의 복수는 아직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복수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 로마서 12:19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분이 우리의 복수자이십니다.

#### 데살로니가전서 4:6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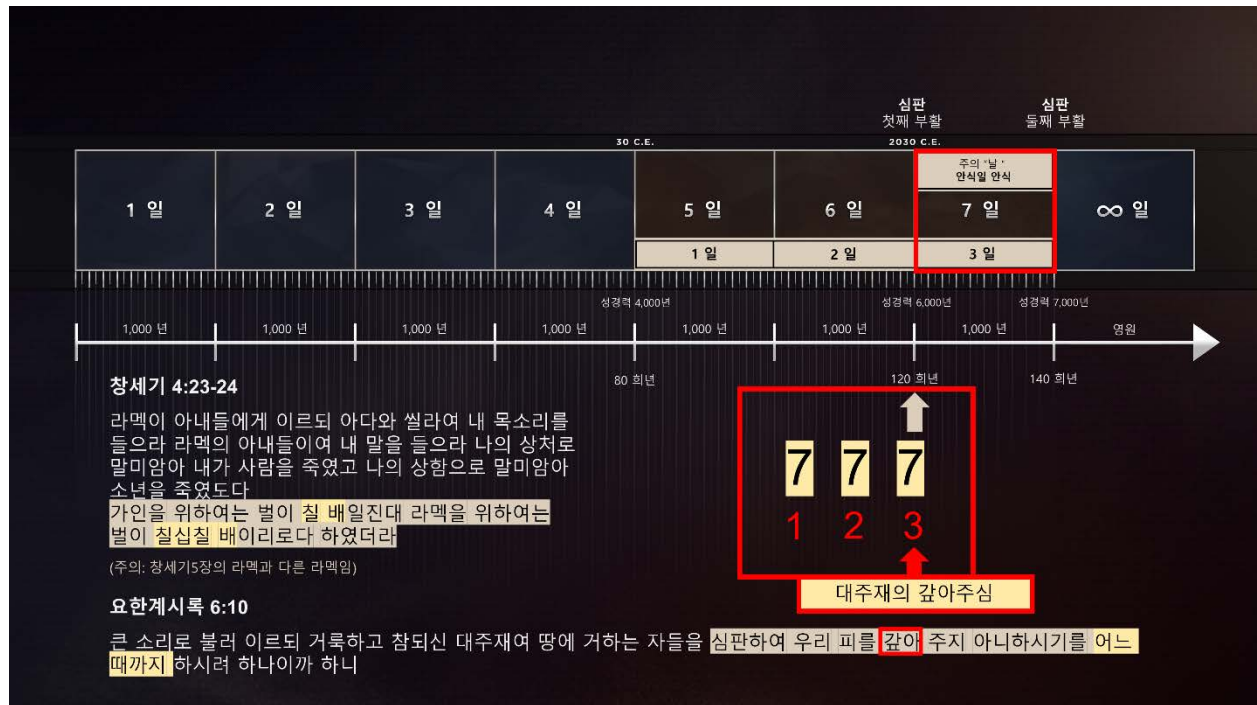
계시록의 다섯째 인에서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자신들에 대해 복수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때까지냐고 묻습니다.

**요한계시록 6:10**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값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값아주실 때까지에 대한 답은 7-7-7 입니다.

Slide 27



**창세기 4:24**

*가인을 위하여는 별이 칠 배일진대 라멕을 위하여는 별이 칠십칠 배이리로다 하였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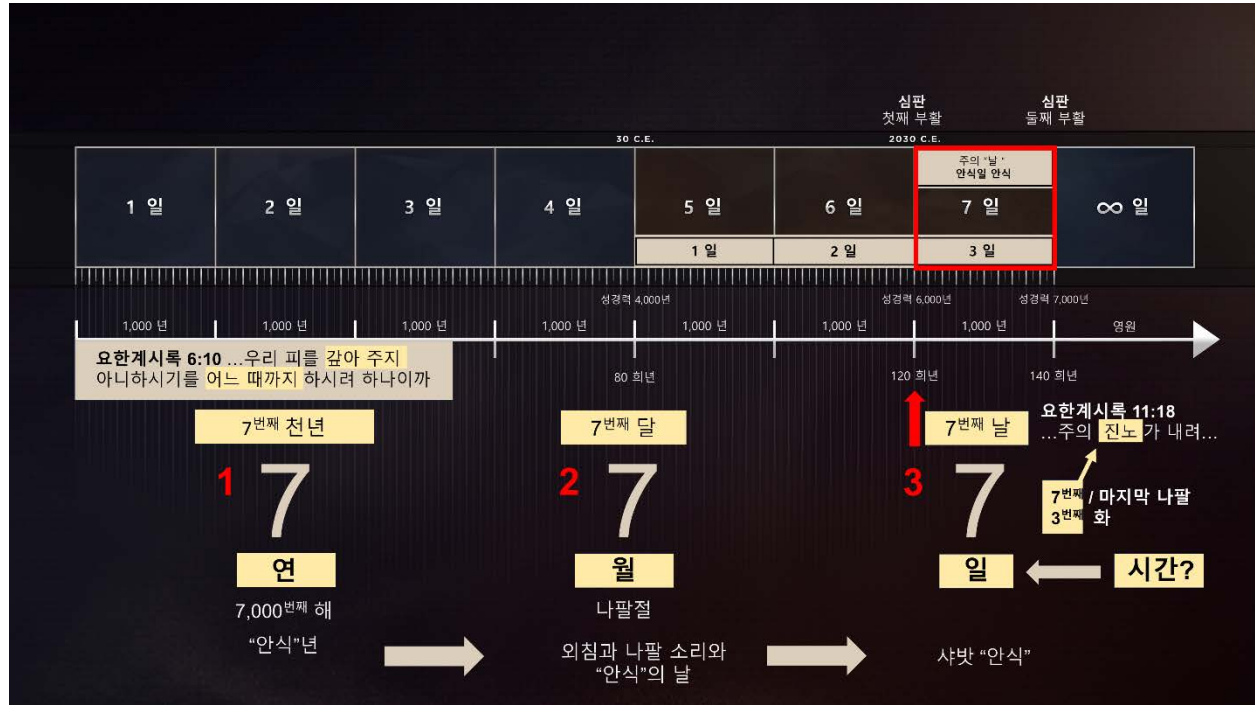
대환난 후 일곱째 해 일곱째 달 일곱째 날에, 메시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될 것이며, 이로써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값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라는 질문에 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메시아의 재림 날짜를 드러낼 수는 있지만, 말씀을 신중히 연구하는 사람은 메시아의 선명한 말씀처럼 여전히 날과 때를 알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 12 장에서 "마지막 때"에 지혜 있는 자들이 그 타임라인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한 것처럼, 메시아께서도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그 시간까지도 알게 될 것임을 신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Slide 28



### 요한계시록 3:3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개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 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hour 에 네게 이룰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

문맥상 사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는 평판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지키고 회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회개하면 메시아께서 실제 돌아오실 때 hour 를 아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미리 알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날과 때를 알지 못하여 메시아가 도둑처럼 오실 것입니다.

### 데살로니가전서 5:4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할때 그 날이 도둑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무엇인가가 일어나는 날에 놀라지 않으려면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미리 아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놀라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때 hour 를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어떤가요?

실제로 그 날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때 hour"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 **마가복음 13:34-37**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119 번째 희년을 지나 그 날에 가까워갈 때, 메시아께서는 회개하고 그의 형상을 닮아가며 그가 믿고 행했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 **마태복음 24:45-46**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다*

이것으로 수십 개의 예언과 패턴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마칩니다. 성경력 4,000년 즉 서기 30년에 메시아가 오시기로 되어 있었으며 진실로 그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것과, 같은 예언과 패턴들이 성경력 6,000년 즉 서기 2030년에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비록 이 모든 것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서 그 날과 그 때를 알고 그분이 도둑처럼 오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그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때가 언제인지를 미리 알려주셨으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엔드 타임의 목적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바르게 걷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르고, 우리 메시아께서 걸으셨던 길을 배우고 행할 때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지어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요한일서 3:4)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따라 영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영생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면, 메시아이신 예수아를 알고 그가 당신을 위해 어떻게,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의 부활이 믿음 안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워가시기를 권합니다.

이 영상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시급히 공유해야 한다고 확신하신다면 지체없이 실행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일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감지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메시아 2030에 대한 커뮤니티 토론에 참여하시려면 [Messiah2030.com](http://Messiah2030.com) 을 방문하십시오.

이 영상을 구매하시면 모든 사람이 이 콘텐츠를 접하도록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배포하는 것을 후원하시려면 당사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contact@messiah2030.com](mailto:contact@messiah2030.com) 로 문의하십시오.

**주시해야 할 날**

**욘 테루아 2030**

**다니엘 12:9-10**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